

여서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9월
2026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IBK기업은행 성서지점 거래고객
(주)제일환경 권재훈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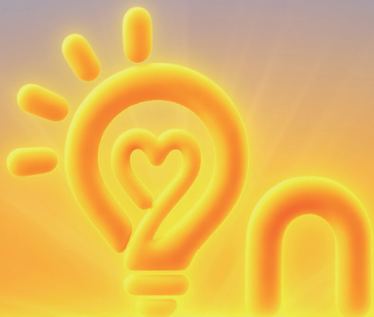


IBK기업은행

55
IBK 창립 55주년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화제
희망이 온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더 든든하게

소외된 이웃을 더 행복하게

미래세대를 더 친란하게

온 세상을 더 따뜻하게

IBK기업은행이 시작합니다



온 세상을 더 따뜻하게

ON-IBK는 '포용금융'과 '사회공헌'을 통해
세상 모두(온)를 더 따뜻하게(온) 만들고자(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IBK기업은행의 사회공헌 브랜드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

중소기업 근로자 기복을 위한 'IBK 장학금 및 치매비',
일·가정 양립을 돕는 'IBK 중소기업 공영직원 어린이집',
산원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프로젝트 'IBK 예술로'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대

취약계층에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IBK 사랑의 밥차',
고령·온돌 등 위기 계층의 자립을 위한 'IBK 희망나눔',
다문화 구성원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IBK 다문화사랑'



지역·미래세대와 함께 지속가능사회 실현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육성을 위한 'IBK 드림월드',
국립공원 보호와 환경 보전의 가치를 나누는 'IBK 자연나눔',
전행시장·공공시장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IBK 희망다자란'



- 04 여성시대 특집
밤하늘 단상
- 11 이달의 편지
'야야, 시를 우째 쓰노?' 외
-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주)제일환경 권재훈 대표
- 76 코너 속 편지
'거울 앞에서' 외
- 109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친절을 모아두렴
- 112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계절은 변한다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6년 9월 10일 발행인(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박정연, 신지호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에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콩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설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04

MBC 라디오 여성시대

밤하늘 단상

이명현 | 과학책방 갈다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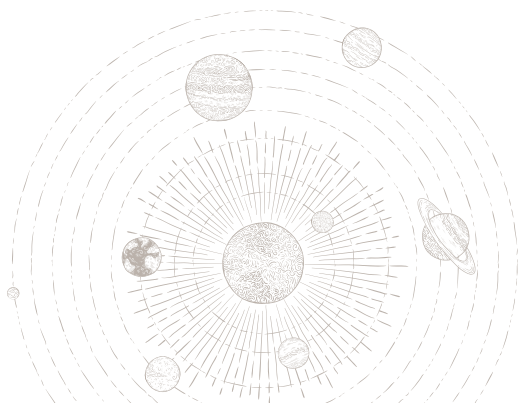


가끔 지인들로부터 반가운 문자를 받는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올려다본 하늘에서 예쁜 달을 발견하고는 천문학자인 나를 떠올린 것이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게 어떤 별인지 물어오기도 하고 캄캄한 곳에서 본 별빛에 대한 긴 감상평을 보내오기도 한다. 별은 늘 밤하늘에 떠 있지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별을 바라보는 여유도 즐기기 힘든 게 현실이다. 그래도 마주친 별을 보면 모두 감상에 젖는 모양이다. 살가운 문자를 보내니 말이다.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별의 기억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교에 들어가기 한 해 전이니까 유치원에 다닐 무렵이다. 그해 여름 7월 20일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 미국의 달 탐사선 아폴로 11호가 우주비행사 3명을 태우고 달로 간 것이다. 아폴로 달 탐사선은 달 주위를 도는 궤도선(사령선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달에 착륙하는 착륙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궤도선에는 마이클 콜린스가 남았고 착륙선에는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탔다. 암스트롱이 달에 인류 역사상 첫 발자국을 남겼다. 나는 이 장면을 동네 어른들과 친구들과 함께 어느 집에 모여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다. 내가 골목길 모퉁이에서 늘 바라보던 그 달에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놀랍도록 경이로웠다. 우주비행사가 어떤 직업인지 천문학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지만 막연히 그런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 같은 아이들을 아폴로 키즈라고 부

른다. 박세리 선수가 활약하는 걸 보고 골프 선수가 된 박세리 키즈나 마찬가지로 나도 아폴로 11호를 보고 천문학자가 되었다. 운 좋게 나는 별을 보고 망원경을 만들고 천체 사진을 찍는 아마추어 천문가 활동을 거쳐서 천문학자가 되었다. 지금은 별과 우주를 주제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우주 이야기를 풀어서 전달하는 과학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내 직업은 몇 차례 바뀌었지만 별을 이야기하는 행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어떤 별이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이 오답을 내놓는다. 정답은 태양이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는 달이다. 달도 지구도 태양도 일상에서는 별이라 부른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스스로 빛을 만들어 내는 천체를 별 즉 항성이라고 한다. 태양은 핵융합 작용을 통해서 빛을 만들고 그 빛을 뿜어내고 있다. 그래서 태양은 별 즉 항성이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그 빛을 반사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이런 천체를 행성이라고 한다. 행성 주위를 도는 천체를 위성이라고 한다. 달은 위성인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다. 태양이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처럼 점으로 은은하게 빛날 게다. 밤하늘에 보이는 은근한 별들도 지구로부터 태양 정도의 거리에 가져다 놓으면 태양처럼 밝게 빛날 것이다. 태양은 별이지만 우리에게 너무 가깝고 압도적이



기 때문에 흔히 태양이 별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낸다. 지구도 마찬가지다. 지구는 태양계 내 행성 중 하나다. 우리는 흔히 행성으로서의 지구를 망각하고 산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침팬지 같은 영장류와 사촌지간인 동물이다. 종으로서의 인류를 우리는 잊고 지낸다. 태양이 별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구의 밤하늘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유일한 별이 바로 태양이기 때문이다. 태양이 하늘에 떠 있을 때를 낮이라고 정하고 태양이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때를 밤이라고 정해 놓았으니 당연히 태양을 밤하늘에서 볼 수 없다. 태양은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없는 단 하나의 별이다. 그래서 낮에 밝게 빛나는 밤하늘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태양을 우리는 별이 아닌 그냥 ‘태양’으로 인지하고 산다.

가을의 밤하늘은 쓸쓸하다. 가을이라는 계절에 걸맞다고나 할까.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이라는 시가 주는 쓸쓸함이 가을의 밤하늘에는 그대로 녹아있다. 가을밤을 대



표하는 별자리로는 카시오페이아자리가 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 한 바퀴씩 도는 별자리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대척점에 북두칠성이 있다. 원리상 카시오페이아자리는 어느 계절에나 볼 수 있다. 하지만 봄밤에는 카시오페이아자리의 고조가 낮아서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다. 가을이 되면 고도가 높아져 쉽게 볼 수 있다. 다섯 개의 2등성 별이 주로 카시오페이아자리를 구성하고 있다. 생각보다 밝지 않아서 찾는 게 마냥 쉽지는 않다. 그 주변에 세페우스자리, 안드로메다자리 그리고 페가수스자리가 있다. 이 별자리들을 이루고 있는 별 중에는 2등성 별들이 꽤 있어서 조금 익숙해지면 별자리를 찾을 수 있기는 하지만 압도적인 느낌보다는 은은하고 쓸쓸한 느낌을 준다.

가을의 밤하늘이 쓸쓸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1등성 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봄의 밤하늘에서는 목동자리의 아르투르스와 처녀자리의 스피카가 1등성 별로 빛나고 있다. 여름밤에는 여름철의 대삼각형을 이루는 직녀와 견우 그리고 백조자리의 데네브라는 1등성 별이 있다.

더 쓸쓸할 수 있는 겨울밤은 1등성 별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오리온자리에만 2개의 1등성 별이 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큰개자리의 시리우스도 오리온자리 바로 밑에서 빛난다. 이 외에도 겨울밤에는 더 많은 1등성 별을 볼 수 있다. 가을은 그야말로 쓸쓸함과 고독을 즐길 수 있는 계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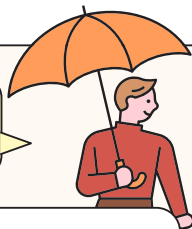
태양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다른 태양계는 센타우루스 알파 시스템이다. 별 3개가 함께 붙어 있는 항성계다. 이 별들 주위를 도는 프록시마 b라는 행성이 있다. 이 행성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면 그들이 밤하늘에서 결코 볼 수 없는 별은 그들의 태양인 별 3개일 것이다. 그들이 밤에 보지 못하는 그들의 태양들을 우리는 센타우루스자리에서 밤에 볼 수 있다. 우리 지구인이 밤하늘에서 결코 볼 수 없는 태양을 그들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다. 카시오페이아자리를 그들은 그렇게 부르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태양은 프록시마 b의 밤하늘에서 카시오페이아자리 근처 6번째 별로 빛나고 있을 것이다. 가까우니 1등성 별로 밝게 빛나고 있을 것이다. 태양이 없는 지구의 밤에서 카시오페이아자리를 볼 때마다 나는 우리의 태양을 그곳에서 보고 있을 프록시마 b의 외계인을 생각하곤 한다. 그들은 그 별 옆 작은 행성에 지구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까. 프록시마 b에 외계인이 살고 있어서 밤하늘의 우리 태양을 보면서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남자의 희생



[9033] 제 남편은 카메라맨입니다. 자기 사진은 안 찍고 가족사진은 많이 찍어줍니다. 이것도 희생이지요.

[4571] 우리 집 남자는 우산을 들어주는 데 내 옷이다 젖어요.



[1960] 라면도 제대로 안 끓여본 우리 아들, 올가을 결혼 앞두고 아내 맛있는 거 해준다고 요리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부부 연습용 요리 먹느라 고문당하는 중입니다.

[7493] 60대 부부입니다. 지금도 텔레비전 볼 때 집사람은 베개보다 편하다며 제 무릎을 베고 뉘입니다. 그럼 저는 무릎이 아파서 왼쪽 오른쪽 번갈아 대줍니다.



[이동욱] 저도 연애했을 때 놀이공원 가서 아내가 다리 아프다고 해서 인간 의자가 되어 제 무릎 구부려준 적 있습니다.

[박길훈] 아내랑 연애했을 때 등산하러 갔는데 샌들을 신고 와서 제 신발 내어주고 맨발로 산행했어요.



12 야야, 시를 우째 쓰노?

16 그들의 보름달 같은 꿈

20 23년 만에 전하는 인사

24 엄마 보고 싶어요

28 2박 3일의 기적

34 국민체조 시작

38 부적 요정

42 '치매 어르신' 가족 찾아드리기

46 조선소에서 쌓은 정

50 아이들을 움직이게 한 힘

55 파킨슨병과 사랑방

58 화병 예방

60 제라늄 나눔



Letter 01

야야, 시를 우째 쓰노?

정희 | 경북 영천시



작 년에 엄마가 여든의 나이로 중학교에 입학했다. 엄마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셨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놀렸고 그게 싫고 부끄러워서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셨다고 한다.

엄마의 기억 속엔 친구들과 산으로 나물 캐러 간 이야기만 가득했다.

“엄마 인생에는 책 읽고 공부한 얘기는 하나도 없네.”

나는 그런 엄마에게 편잔 아닌 편잔을 주곤 했다.

수틀에 수놓던 이야기, 장독에서 밤참으로 김치를 꺼내 먹던 이야기, 먼 산까지 나물 캐러 간 엄마가 돌아오지 않자 외할머니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 앞에 마중 나와 계셨다는

이야기. 경사진 곳에서 포대기를 깔고 얼음을 타다가 넘어져서 앞니 반쪽을 잃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마음이 아렸다. 그런 이야기뿐이었다.

그 시절 이야기를 할 때 엄마의 얼굴에는 늘 웃음과 설렘이 함께했다. 뭐가 저리 즐거우실까? 나에겐 문명의 혜택이라곤 없는 산촌의 빈곤함이 먼저 보이는데 말이다.

그런 엄마가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더니 중학교에 입학해 시를 배우기 시작하셨다. 가끔 엄마 집에 들르면 당신이 쓴 시를 내놓고 어떠냐고 물으셨다. 나는 한 번 쓱 훑어보고는 문장이 너무 길다고 성의 없이 툭 내뱉었다. 선생님도 비슷하게 말했다며 엄마는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있었던 일을 나열하는 일기 같았다.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엄마는 쓰고 또 쓰셨다. 바구니 메고 이 산 저 산 다니며 나물을 뜯고 또 뜯는 것처럼. 왜 시를 쓰냐고 물어보면 그저 재미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래 혼자 계시는데 뭐라도 하셔야지.”

나는 엄마의 홀로서기가 껴이나 반가웠다. 혹 가까이 사는 나에게 차를 태워 달라거나 장을 봐달라는 귀찮은 부탁이라도 할까 봐 겁이 났는지 모른다.

“야야, 시를 우째 쓰노?”

엄마가 물으셨다.

“우째 쓰기는요. 엄마 생각을 쓰면 되죠.”

“선생님도 그리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생각’이 뭐꼬?”

“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게 생각이죠. 방금 시가 어



럽다고 하셨죠? 그것도 생각이예요.”

엄마는 말은 알겠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환했다. 당신이 쓴 시가 어떠냐며 들려주셨다.

잠

젊었을 때는 잠도 잘 오더니만
내가 늙어 그런지 잠도 늙은 듯하다.

나처럼 다리가 아파 빨리 걷지 못하는 걸까.
어느 벤치에 앉아 허리가 아파 쉬고 있는 걸까.
하루가 지루해 여행을 떠난 걸까.

잠아, 다리 아프거든 천천히 오고
여행 갔거든 어서 빨리 돌아오너라.
현관문 열고 기다릴게.

나는 깜짝 놀랐다. 무뚝뚝한 엄마에게도 저런 깊은 감성이
숨어 있었을 줄이야. 손이 거칠어지도록 농사지으면서 다섯이
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느라 엄마의 감성은 가슴속 깊이 묻어
야 했던 건 아닐까?

“엄마, 잘 쓰셨어요. 이제 생각이 마구 튀어나오네.”

나의 대답에 엄마는 아이처럼 좋아하셨다.

오늘도 엄마는 시를 쓰신다. 오지 않는 잠을 기다리는 대신
온 산을 다니며 나물 뜯듯이 시를 쓰신다. 엄마의 시 바구니
에는 다래순, 취나물, 머위와 산 도라지가 가득 차 있다.

“야야, 시를 우째 쓰노?” 하시던 우리 엄마. 엄마의 연필 끝
에는 연둣빛 감성이 매일 밤 피어나고 있다.

Letter 02

그들의 보름달 같은 꿈

송주광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60 대 초반인 저는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김포골드밸리라는 산업단지에서 일합니다. 공장 노동자는 아니고 공단 안에 있는 중소형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낮 12시 반에 출근하여 밤 10시 반까지 쉴 틈 없이 일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대학에 다니는 아들딸의 학비를 대고 아내의 살림을 도우며 그럭저럭 구차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야채 코너에서는 양파를 까고 마늘을 다듬고 기타 잡다한 채소들을 손질하여 포장해서 매대에 진열합니다.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낱아 빠진 다마스에 물건을 싣고 텅텅거리며 공장, 원룸, 아파트 단지로 배달을 나갑니다. 배달이 끝나는 7시 이후에는 카운터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마감 시간이 되면 청소하고 정리한 후에 퇴근하죠. 그렇게 반복하는 노동을 1년

째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몸으로 일하는 2차 산업단지라 3D업종이 많아 서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마트의 주요 고객이지요. 방글라데시, 미얀마, 베트남,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 청년들이 우리 마트를 먹여 살립니다. 연령대는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반이 대부분이고 드물게 50대 이후의 노동자도 보입니다.

이 동네 내국인들은 시내 중심지에서 밀려 나와 공단 지역의 값싼 임대료에 기대 사는 노년층이 대부분입니다.

공장이나 그에 딸린 숙소로 배달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의 현장을 한눈에 보게 됩니다. 기숙사형 숙소와 식당이 제공되는 곳도 있지만 드문 경우고 낙후된 부속 건물이나 임시로 설치한 컨테이너가 그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장소입니다. 추위와 더위, 눈보라와 비바람 앞에 한없이 취약해 보입니다.

육중하고 날카로운 설비들이 가동되고 있는 생산 현장에 서 소음과 분진이 날리는 가운데 구릿빛 몸을 움직이며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배달 물품을 전달하러 가면 일하는 와중에도 흰 이를 드러 내며 반갑게 인사하고 맞아줍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작업 중이라 힘들 텐데도 한사코 배달 물품을 받아 옮겨줍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늦게 왔네, 초인종을 눌러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가 놀랐네, 포장한 물건이 흐트러졌

네’ 하면서 잔소리에 갑질까지 해됩니다.

2리터 6개짜리 생수 박스와 배달 물품을 들고 한여름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 4층을 올라가 보십시오. 아득한 계단을 오르노라면 땀은 비 오듯 떨어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몇 폰 되지도 않는 생수 보따리며 쌀, 무, 배추 같은 식료품을 배달하고 나면 녹초가 됩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뒤돌아설라치면 귀신같이 문을 열고 나와 현관 안까지 옮겨 달립니다. 몸을 못 놀릴 정도의 노인들도 아닙니다. 대부분 5~60대 정도인데 참 인정 없고 삭막합니다. 많이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베푸는 회식 외에는 외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먼 타국에서 힘들게 번 돈을 결코 허투루 쓰지 않아요. 고국의 부모 형제, 처자식에게 대부분 송금하고 최소한의 돈으로 형편없는 숙소에서 겨우 생존하는 정도로 생활합니다. 모진 인내의 힘으로 말입니다.

너무 힘이 드는 탓일까요? 그들도 술의 힘을 빌리는가 봅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싸구려 위스키 등속의 주류가 그들이 빠지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은 물품입니다. 안주는 주로 땅콩, 스낵, 빵 등이고 식사를 겸한 고기류로는 가장 가격이 싸고 양이 많은 돼지 뒷다릿살과 돼지 간, 염통, 족발 등의 부속물을 사 갑니다.

“햇산, 무슨 소주를 그것도 댕 병으로 매일 사가?”

“짜장님~ 힘들면 잠이 안 와서. 이거 먹으면 잠 잘 와요. 그래서 먹어요. 맛있어서 안 먹어요.”

“그럼 안주를 잘 먹어야지. 매번 땅콩 한 봉지가 뭐야. 땀 병에?”

“돈 없어서. 돈 쓰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식구들 돈 부쳐야 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숙연해집니다. 그의 꿈이 무엇인지 알 것도 합니다. 고생한 탓인지 스물여섯이었는데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어제는 초저녁에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모시시스템이라는 금속 가공업체에 배달 갔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하루 작업을 마치고 저녁을 지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시간, 대곶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공장이 있는 쪽 서산마루에 노을이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맑은 초승달은 벌써 떠올라 있고 노을의 잔영은 사라지기 직전이었죠.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어가듯 만월의 꿈을 꾸며 더 나은 삶을 위해 타국에서 땀 흘리는 나의 친구들, 고운 빛으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이방인 친구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나날을 기원했습니다.

“짜장님~ 가면서 이거 먹으십시오.”

배달을 마치고 마트로 돌아가는 내 손에 방글라데시에서 온 숙련된 금속 노동자 ‘빌랄’이 피로회복음료 한 병을 쥐여 주었습니다.

Letter 03

23년 만에
전하는 인사

송재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양 희은 선생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23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방송에서 보이는 선생님의 모습은 그대로 세요.

2003년 5월 여성시대에 사연을 보냈는데 채택되어 방송에 소개되고 월간 여성시대에도 소개가 되었었지요. 작가님과 사진작가 두 분이 오셔서 식자재 유통 일을 하던 저랑 다니면서 업체 사장님들 인터뷰도 하고 제 일과를 담아 그해 5월 여성시대 책자에도 실렸던 송재훈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돌아가심으로 세 동생과의 힘든 삶 이후 가수로서의 짧은 활동 중 신인가수로 첫 앨범을 파주 킹레코드사에서 녹음하던 중 양희은 선생님께 첫인사를 드렸었던 일과 갑작스러운 결혼과 직장 생활 그런 내용이었습

니다.

당시 열 살이었던 큰아들이 벌써 서른두 살의 나이로 퓨전 음식점 매장의 사장이 되었고 세 살이었던 딸아이는 스물여섯 살로 나름 공부를 잘해 우리나라 유수의 공과대학과 대학원 졸업 후 대기업 바이오 분야의 박사 과정 연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말 빼고 거의 매일 여성시대를 애청하고 있습니다. 사연 소개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제가 벌써 환갑이 다 돼가는 나이가 되었네요.

2003년 사연 소개 후 2010년 15년 다닌 회사를 퇴사 후 선배와 함께 작은 유통 사업을 한답시고 뛰어들었다가 선배의 배신으로 2년간 잘 되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한 순간 5억의 빚을 떠안고 15년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구매한 집과 재산을 다 처분해서 일부를 갚고 지인분의 융통으로 빚을 해결하였습니다.

그 후 아이들은 처가에 맡기고 아내와 저는 정든 서울을 떠나 충남 천안이라는 곳에 2011년 내려와 작은 프렌차이즈 치킨집을 오픈했습니다. 낯선 곳이라 텃세도 심했고 정착하기까지 힘들었습니다. 친구와 후배, 여기저기서 돈을 조금씩 빌려 창업 자금으로 하다 보니 우리 부부 살 집이 없어 매장 한쪽 칸을 방으로 만들어 두 사람이 옆으로 자면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에서 자면서 아내는 매일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요.

1년을 이 악물고 장사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장사 준비하

고 있으면 동네 분들은 ‘무슨 치킨집이 새벽부터 준비하냐’라며 신기해하셨습니다. 그게 궁금하셨는지 저녁에 퇴근 후 오셔서 드시고 맛있다고 가족도 지인도 데려오고 홍보도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치킨이 맛있고 젊은 부부가 친절하다는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떨어져 산 지 1년 만에 집을 얻어 같이 살게 되었고 창업 시 빌린 지인들 돈 또한 이자 넉넉하게 준비해서 3년 만에 다 갚고 다시 열심히 번 돈으로 집도 사고 매장도 3개로 늘렸습니다.

13년간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때도 문 안 닫고 적자 내면서 직원들 퇴직 안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퇴직하면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어려워도 함께 이겨내 보자고 하면서 2년간 월급 주고 운영하다 보니 코로나19가 끝날 조짐이 보였습니다.

‘이제 장사 잘되겠지’ 했지만 장사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외식 문화는 이미 배달 문화가 자리 잡아 손님들 먹거리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 오프라인 자영업자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버티다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2024년 모든 매장을 정리하고 코로나19 때 진 빚도 매장 정리한 걸로 해결하고 지금은 직장에서 대형 화물차로 물류배송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납골당에 들러 인사 후 납골당 앞 작은 호수 옆 의자에 홀로 앉아 제 인생을

잠시 돌아보았답니다. 물끄러미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는데 어릴 적 먼저 가신 엄마의 얼굴이 보이네요. 환하게 웃으시며 “훈아~ 잘 살아줘서 고맙고 동생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 그런 환청이 제 귓가에 작게 들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은 나 몰라라 했던 아버지도 “고맙다. 큰아들로 넌 훌륭했어. 장하다” 그러시네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엄마 아버지, 저 잘 산 거죠? 동생 셋 다 결혼시켜 잘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 잘 키웠고 항상 제 일이라면 기죽지 않게 편들어준 아내 실망시키지 않고 33년간 잘살고 있고 천주교 신자로 어려운 분들께 봉사활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엄마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때 만나면 쓰담쓰담 해주세요.”

24년간 여성시대를 사랑하고 애청하는 팬으로서 기쁜 슬픈 화나는 사연이 있지만 여성시대는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힘을, 가슴 아픈 일엔 공감을, 불의에는 통쾌함을 주는 방송입니다. 양희은 선생님 건강 잘 챙기시고 함께하시는 김일중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23년 만에 두 번째 사연을 보낸 계기는 첫 사연 소개 후 ‘나중에 우리 막내 대학 졸업 후 꼭! 사연 후기를 적어보자’ 했는데 그 약속이 23년 걸렸네요.

Letter 04

엄마 보고 싶어요

원종훈 + 줄리 길버트슨 | 경기도 시흥시



저는 ‘해외입양인연대’(G.O.A.L.)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원종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돕고 있는 줄리 길버트슨(Julie Gilbertson), 한국명 박도숙 씨가 친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오리건주에서 살고 있으며 결혼하여 딸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교사입니다. 그녀가 직접 적은 편지가 소개되면 좋겠습니다.

엄마!

한국을 떠난 지 어느덧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안타깝게도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저는 모국어와 익숙했던 풍경과 냄새 그리고 제 삶의 시작을 함께했던 분들의 얼굴과 기억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제



게 선물해 주신 마음속의 사랑만큼은 단 한 순간도 잃지 않았습시다.

제가 제 출생에 대해 알고 있는 많지 않은 기록에 따르면 저는 1984년 11월 1일 오전 11시경 인천 현대시장에서 발견되었대요. 그날 제가 그저 길을 잃었던 것인지, 아니면 저를 일부러 그곳에 두고 가셨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만약 저를 보내기로 결정해야 했었다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제 가슴도 미어지는 듯해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텐데 그토록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던 엄마의 심정을 제가 엄마가 되어 보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죄책감이나 슬픔의 그늘 속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부디 건강하고 밝게 지내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아직도 제 모습을 마음에 품고 계신다면 저를 낳아 주신 엄마와 아빠가 앞으로도 평안과 건강 그리고 행복 속에 살아가시길 바랄 뿐이에요.

지금 제 삶은 넘치는 사랑과 즐거운 기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저나 제 아이들과 관련해 가족력을 물으실 때면 제 삶의 잃어버린 조각들이 유독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제 딸들과 제가 앞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을 조심하고 살펴야 하는지 알고 싶은 마음도 간절합니다.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예쁜 외손녀가 셋이나 있다는 걸 엄마가 아시면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이 아이들은 엄마의 일부분이고 저희 모두는 언젠가 엄마와 할머니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설령 제가 엄마가 누구인지 끝내 알지 못한 채 지금처럼 멀리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저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 거예요.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엄마가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그 결정을 온전히 존중하고 따를 거예요. 저는 그 무엇보다 엄마가 힘들지 않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니까요.

- 사랑하는 딸 박도숙 / Julie Gilbertson 올림

한인 입양인이 헤어진 가족을 찾습니다

박도숙(Park, Do Sook)

입양기관 또는 보호소에서 지어진 이름일 가능성 있음

현재 이름 : Julie Gilbertson

생년월일 : 1982년 8월 15일 추정

발견 지역 : 인천 동구 현대시장 인근

입양기관 : 홀트아동복지회

DNA 등록 여부 : 가족 찾기용 DNA 등록 완료

기타

- 1984년 11월 1일 오전 11시, 인천 동구 현대시장 인근 길거리에서 발견
- 인천 남구청 인계 후, 인천 용현동 해성보육원 위탁 (1984년 11월 1일부터 1985년 6월 28일까지)
- 왼손에 두 개의 흉터가 있다는 입양 서류 기록이 있으나 현재는 해당 흉터가 없음
- 보육원 생활 당시 같은 방의 '구미남'이라는 남자아이와 매우 친하게 지냈다는 기록이 있음
- 1985년 11월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
- 입양 서류상의 이름, 생년월일, 발견 장소 등은 행정 절차상 추정치일 수 있습니다.

기록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진과 정황이 유사하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Letter 05

2박 3일의 기적

최진옥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서울 서초동의 한 로펌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평범한 오십 대 후반의 회사원입니다. 매월 10일이면 회사 근처 기업은행에 들러 여성시대 책자를 받아 첫 장부터 끝장까지 정독하는 게 제 오랜 낙입니다.

저에게는 한 살 어린 아내와 세 아들이 있습니다. 스물아홉, 스물일곱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인 늦둥이 막내까지 다섯 식구가 복잡거리며 살고 있지요.

사건의 시작은 지난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막내가 슬그머니 제 곁으로 와 슬픈 눈망울로 말하더군요.

“아빠, 우리 반에는 현장체험학습 내고 외국 여행 가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 나도~ 한 번만 외국 가보면 안 될까?”

간절한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늘 바쁘다

는 핑계로 늦둥이 막내 녀석과 제대로 된 추억 하나 만들어 주지 못한 못난 아빠였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다 결심했습니다.

회사 일정상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일본 삿포로로 아들과 단들의 3박 4일 자유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호텔, 항공권, 렌터카 예약까지 마치고 지난 6월 9일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신치토세 공항에 도착해 차를 넘겨받았을 때 운전석 위치도 운행 방향도 우리와 반대라 눈앞이 아찔하긴 했습니다. 이내 긴장하며 운전대를 잡았고 한 시간 걸려 삿포로 시내 호텔에 무사히 짐을 풀었습니다. 아들과 손을 잡고 시내 야경을 보며 맛있는 것도 먹고 밤늦게 침대에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식을 든든히 먹고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민우야, 오늘은 일본의 대자연을 보여줄게. 기대해.”

하늘은 조금 흐렸지만 창밖으로 스치는 북해도의 청량한 공기가 우리 부자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국적인 간식도 사 먹고 경치도 구경하며 행복감에 젖어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텔을 떠난 지 2시간쯤 지났을 무렵인 6월 10일 낮 12시경 낮선 도로 체계 탓에 저도 모르게 집중력이 흐려졌던 걸까요. 한순간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고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뿡!’ 하는 굉음과 함께 정면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에어백이 터진 매캐한 연기 속에서 막내는 자지러지게 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

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자식이 죽는다’라는 일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막내야! 아빠 봐. 우리 사고 났지만 살아있어. 아빠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아빠가 110번 일본 긴급전화 누를 테니까 스피커폰 대고 네가 소리쳐!”

통화 버튼이 눌러지자마자 12살 아들은 울음을 뚝 그치고 목청이 터지라 외쳤습니다.

“와다시와 캄꼬꾸진데스! 에스오에스(SOS)! 헬프미!”

잠시 후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고 우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마친 의사 선생님은 제 손등뼈가 골절되었다며 응급처치만 해줄 테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 수술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뼈나 장기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온몸에 시퍼런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어 퉁퉁 부어오른 상태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찾아온 일본 경찰관 2명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 출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재판으로 넘어가면 언제 한국에 갈지 기약이 없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저만 재판받을 테니 제 아들은 먼저 귀국시켜 주십시오!”

절규하듯 말했지만 보호자가 없으면 아이는 대사관을 통

해 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급히 한국에 있는 큰아들에게 전화해 당장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끊어 일본으로 날아오라고 울부짚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분이 천사였던 걸까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해온 것입니다. 극적으로 귀국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의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가장 빠른 귀국 편을 예매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겨우 택시를 타고 샤프로 호텔방으로 돌아오니 밤 8시 반이었습니다. 초췌한 몸골로 침대에 앉아 있는데 문득 화장실 거울 옆에 놓인 ‘조식 뷔페 이용권 4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같이 공항으로 가야 하니 쓸 수 없게 된 표였지요. 치료비며 택시비며 예상치 못한 큰돈을 쓰고 나니 그 몇만 원이라도 환불받아야겠다는 궁상맞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손을 잡고 프런트로 내려가 쭈뼛거리고 서 있는데 옆에 계시던 30대 후반의 한국인 젊은 부부가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 분이시죠?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가 통역해 드릴 테니 말씀하세요.”

구세주 같았습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조식권 환불과 온몸이 아파 나갈 수 없으니 햄버거 배달을 시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분들은 유창한 일본어로 호텔 측과 대화를 나눠 주었지만, 호텔 매뉴얼 상 조식권 환불도 현금 결제를 통한

햄버거 대리 주문도 불가능하다는 야속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아 7분을 걸어 나갈 엄두가 안 났던 저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올라가서 대충 자야겠습니다.”

인사를 건네고 방으로 터덜터덜 올라왔습니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들려던 찰나 20분쯤 지났을까요? 방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까 그 통역을 도와주셨던 한국인 남편분이 숨을 헐떡이며 서 계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딱딱딱한 햄버거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돈을 드리려고 지갑을 찾는데 그분이 손사래를 치며 도망치듯 복도로 뛰어나가며 외쳤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입니다. 아까 경찰서 다녀오신 얘기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어 뛰어다녀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멍해진 저를 보며 침대에 누워있던 아들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빠~ 방금 천사가 다녀가신 거야?”

녀석은 눈물이 그렇그런한 채로 햄버거를 복스럽게 먹어 치웠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딱내야, 우리가 이 고마움을 갚는 방법은 한국에 돌아가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베푸는 거야. 알았지?”

민우는 입가에 소스를 묻힌 채 “응! 기분 최고야 아빠! 그

리고 내가 좀 통통해서 덜 다친 것 같아. 말랐으면 뼈 부러졌어!” 다시 까르르 웃었습니다.

다음 날 일본 공항을 거쳐 마침내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섰을 때 한국에 있던 큰아들이 동생이 좋아하는 햄버거 세트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자의 파란만장했던 3박 4일 여행은 기적 같은 2박 3일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사고가 있는 지 이제 3주가 흘렀습니다. 막내는 다행히 건강하게 학교에 잘 다니고 있고 저 역시 부러진 손등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다소 불편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출퇴근길에 마주치는 초록빛 나무들, 사소한 일상의 풍경들이 왜 이리 눈물겹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온통 감사한 일들뿐입니다.

진박한 순간 소통 창구가 되어준 스마트폰 번역 앱에 감사하고 가해자인 저희를 너그럽게 선처해 준 이름 모를 일본인 운전자분 그리고 먼 이국땅에서 국경을 넘어 인술을 베풀어 준 구급대원과 의료진, 친절했던 경찰관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낯선 호텔방에서 절망하고 있던 우리 부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따뜻한 온기를 건네주셨던 ‘햄버거 천사’ 젊은 부부님. 당신들이 베풀어 준 그 햄버거 한 세트는 저희 민우가 평생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위대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Letter 06

국민체조 시작

조성월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50 대 후반의 38년 차 여성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정년퇴직 이후를 또 열심히 준비 중인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88년 3월 21일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짧은 커트 머리의 선머슴 같았던 제가 회사에 첫발을 내디딘 날입니다. 전 직원이 50명도 안 되는 의약품 제조 회사로 통근 버스를 타고 한 시간 정도 달려 도착했습니다. 첫 직장이었지만 회사 분들이 고등학생 티가 물씬 나는 저를 매우 잘 살뜰히 챙겨주신 덕분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들 대학에 진학할 때 저는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몸도 불편하신 채로 농사를 지으며 오 남매를 위해 고생하시는 모습이 눈에 밟혔습

니다. 부모님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진학을 미루고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조금 특이했던 건 출근하면 매일 업무 시작 전에 전 직원이 앞마당에 모여 인사를 나누고 스피커로 흘러 나오는 “국민체조 시~작” 하는 구령과 함께 음악에 맞춰 다 함께 체조를 하는 문화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월요일 조회 때마다 전교생이 하던 국민체조를 직장에 와서도 아침마다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38년 전에 입사한 그 회사에 제가 여태 다니게 될 줄도 몰랐네요.

저는 그사이 성실한 남편을 만나 두 아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사내 산악회 회장이었던 남편과 총무였던 제가 눈이 맞아 사내 커플로 결혼하게 되었고 이후 남편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그 사이 IMF가 터지면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고 우리 부서에서도 인원 감축 얘기가 흘러나왔을 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회사 규정상 신입사원부터 감축 대상이 되는데 이럴 때 제일 언니인 당신이 다닐 만큼 다녔으니 알아서 퇴사해 주면 나이 어린 신입들이 부담을 덜고 다닐 수 있지 않겠냐’라고요. 이럴 때 선배, 언니 노릇을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입사 10년 차였던 저는 큰아이가 다섯 살이었고 처음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도 들어가던 때라 퇴사 결정을 내리기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 남편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젊은 날의 손때가 묻은 회사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만두게 된 겁니다.

퇴사 후 친정엄마께 큰아이 돌봄을 의지해 왔던 것을 만회라도 하듯 아이 손을 잡고 아침 일찍 아무도 없는 공원에 나가 뛰어놀았습니다. 그렇게 바뀐 생활에 아이도 저도 차츰 적응해 가던 무렵 퇴사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근무하던 부서의 팀장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직원이 퇴사하여 경력사원이 필요한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공장장님께서 저를 적극 추천하셨다는 겁니다. 아파트 중도금을 마련하려고 퇴직금과 결혼 예물로 받은 금까지 팔던 때라 남편과 의논 끝에 재입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회사와 인연을 맺은 지 올해로 어느덧 38년. 국민체조가 최근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회사 앞마당에서 사무실로 바뀌었지만 그때 그 시절 음악 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사무실 천장 스피커에서 “국민체조 시작!” 구령이 울려 퍼지고 음악에 맞춰 부서별로 체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회사도 성장해서 50명도 안 됐던 직원이 이제는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는 50대 후반의 중년이 되어 있지요.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바쁜 삶을 살아내면서도 잠시 놓았던 공부를 이어가며 학위도 취득했고 이제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며 몇 년 전부터는 주말마다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60대의 삶을 위해 평소 늘 해보고 싶었던 굴착기부터 로더, 지게차 등 중장비 면허에 도전한 겁니다. 학원에 가보니까 온통 아저

씨들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작은 몸집의 중년 여성이 배우겠다고 앉아 있으니 모두 하나같이 신기하고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어이 해내고 말겠다!’ 당차게 시작한 도전이었고 그렇게 하나둘 늘어난 자격증이 이제는 드론 교관을 포함해 10여 종이 넘습니다. 이 쓰임새가 어떻게 발휘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또 압니까? 60세 퇴직 이후에는 제가 저와 같은 50대 중년들의 은퇴 후 삶을 돕는 일을 하고 있을지? 잠깐 해보는 상상이지만 웬지 모르게 든든하고 위안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회사 생활도 더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며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하던 해나 그 한참 이후에 태어난 직원들이 이제는 동료로 함께 일하고 있지요.

오늘도 업무 시작 전 아침 7시 30분이면 변함없이 사무실 천장 스피커에서 국민체조 음악이 흘러나오고 제 양옆에는 한참이나 나이 어린 동료들이 함께 체조를 합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생산기획팀에 입사한 수빈이는 우리 집 막내 또래인데 보고 있으면 38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응원하게 됩니다. 또 바로 제 옆에 서는 세림이는 제가 뽀뽀기 운동을 할 때 너무 진지하게 높이 쿵쿵쿵 뛰는 모습이 웃긴다며 오늘도 저 덕분에 웃으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일선에서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모든 동년배님, 열렬히 응원합니다. 다가오는 제2의 인생을 위해 우리 모두 파이팅!

Letter 07

부적 요정

신제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저는 결혼 10년 차 남편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편지를 쓰게 된 건 요즘 제 일상의 전부이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어버린 제 아내의 유별난 남편 사랑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 및 시공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보니 아내는 제가 출근할 때마다 귀에 딱지가 앉도록 외치곤 합니다.

“여보~ 오늘도 명심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남편 걱정하는 마음이야 세상 모든 아내가 다 똑같겠지만 제 아내는 약 1년 전부터 그 걱정의 방향이 조금 독특한 곳으로 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부적’입니다.

시작은 가벼운 사고였습니다. 작년 봄 현장에서 가벼운 자재가 발등으로 떨어져 발가락에 실금이 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사색이 되었죠.

그날 이후 아내는 전국에서 용하다는 점집과 절을 수소문 하더니 어느 날 제 지갑에 슬며시 노란 종이 한 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몸에 지니고 있으면 사고를 막아준대. 밀져야 본전이니까 꼭 넣고 다니자.”

그때까진 저도 아내의 정성을 생각해 기분 좋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더니 아내의 ‘부적 컬렉션’이 건잡을 수 없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출근용 가방 안쪽 주머니에는 ‘안전제일 부적’, 매일 입는 안전조끼 안감에는 아내가 뽀뽀뽀한 바느질로 꿰매놓은 ‘액막이 부적’, 심지어 안전모 안쪽 이마가 닿는 패드 뒤편에도 조그만 부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양말을 신으려고 보면 발바닥에 깔아두는 ‘한자가 적힌 종이’가 나올 때도 있었죠.

이쯤 되면 저는 움직이는 ‘인간 부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귀신들이 진짜 무서워서 도망가겠다 싶을 정도로 많아서 몇 개는 빼놓고 다니고 싶어도 매일 밤 제가 무사히 퇴근할 때마다 부적 덕분이라며 안도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작업을 마치

고 탈의실에서 동료들과 작업복을 갈아입을 때였습니다. 땀에 젖은 안전조끼와 상의를 훌러덩 벗어 던졌는데 갑자기 탈의실 사방으로 노랑고 빨간 종이 뭉치가 날리더군요. 아내가 제 지갑, 주머니, 심지어 러닝셔츠 안쪽에 옷핀으로 달아둔 부적들이 주머니가 뒤집히면서 사방으로 흩어진 겁니다. 순간 탈의실엔 정적이 흐르고 동료들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부적들과 저를 번갈아 향했습니다.

“어라? 신 부장, 이게 다 뭐냐? 자네 혹시 투잡으로 무속인 하나?”

현장 소장님의 농담을 시작으로 탈의실은 그야말로 웃음바다가 되었고 동료들은 떨어진 부적들을 하나씩 주워 올리며 구경했습니다.

“와, 이건 글씨가 엄청 현란하네. 안전운전 부적인가?”

“신 부장, 너 혼자만 오래 살려고 부적으로 아주 도배를 했구먼! 우리한테도 좀 나눠주지.”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개진 저는 허겁지겁 부적을 주워 담으며 “집사람이 하도 걱정을 해서요…”라고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놀려대던 현장 반장 형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며 한마디하시더군요.

“야, 농담 아니고 부럽다 부러워. 우리 마누라는 나갈 때 인사도 안 하는데 네 와이프는 널 얼마나 꼼짝하게 아끼면 이 고생을 해서 부적을 다 구해왔겠냐. 이거 부적 효과가 아니라 와이프 사랑 덕분에 너 절대 안 다치겠다.”

그 말에 주변 동료들도 “맞아. 요즘 세상에 저런 아내가 어

됐나~” “신 부장, 장가 진짜 잘 갔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놀림으로 시작했던 탈의실이 순식간에 저에 대한 부러움과 아내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찬 겁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니 아내는 민망해하면서도 당당하게 외치더군요.

“거봐. 다른 사람들도 부러워하잖아. 그러니까 절대 빼지마!”

그리고 어제 제 자동차 햇빛 가리개 안쪽에서 새로운 부적이 또 하나 발견됐습니다.

아내의 지나친 부적 사랑에 여전히 가끔은 당황스럽지만 그 노란 종이 한 장 한 장에 담긴 것은 그냥 미신이 아니라 ‘제발 다치지 말고 내 곁으로 무사히 돌아와 달라’는 아내의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이 정도면 사랑 받는 남편 맞죠?

나의 귀여운 부적 요정, 여보!

당신 마음 다 아니까 이제 부적은 그만 사도 돼. 당신 사랑이라는 가장 큰 부적이 매일 내 가슴속에 있으니까! 앞으로 도 당신 생각해서 현장에서 절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게. 사랑해!

Letter 08

‘치매 어르신’ 가족 찾아드리기

허연범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일 상생활에 새콤달콤 활력이 되어주는 유익한 방송 ‘여성시대’ 너무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노원경찰서 교통안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안전3팀은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과 성수 방향 등 양방향 약 20km 구간의 비교적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이기에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집중호우, 폭설 시의 교통관리부터 크고 작은 사고 처리, 음주 단속을 도맡아 합니다. 그리고 ‘치매 노인’으로 보이는 분이 걸어간다’ ‘전동 휠체어가 지나간다’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위험 방지 업무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늘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치매 어르신이나 지체장애가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위험하게 자동차전용도로를 맨몸으로 걸어가거나 전동 휠체어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낮 시간은 물론이고 특히나 위험한 어두운 늦은 밤에도 아무런 표식도 없이 무작정 도로로 걸어가시곤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월평균 1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그때마다 가족들을 찾아드리거나 주거지까지 모셔다드리며 작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시는 경우는 지구대, 파출소와 협조하여 여러 조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간을 도로 순찰차에서 보내게 되어 어르신들이 무척 힘들어하십니다. 그나마 휴대폰이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가 있으면 바로 모셔다드리지만 문제는 휴대폰도 메모도 기억도 없으신 경우입니다. 애타게 찾고 있을 가족들에게 빨리 모셔다드리고 싶지만 그럴 땐 방법이 없어서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야간에 전동 휠체어를 탄 치매 어르신이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을 때입니다. 타 관할 구역이었지만 긴급함을 인지하고 순찰차 3대가 출동해 노원구에서부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중랑교 부근에서 어르신을 발견했지요. 어르신은 순찰차로 맥

까지 10km가 넘는 거리를 모셔다드렸고 전동 휠체어는 강서구에 있는 경찰 견인차량까지 지원 요청해 집까지 안전하게 갖다드렸습니다.

둘째로 대학교 교수를 지내셨던 치매 어르신이 창동교에서 상계교 사이를 가끔 반복해서 걸어가셨던 경우입니다. 한 번은 보슬비가 내리는 밤 퇴근길에 그 어르신을 또 발견했습니다. 불봉으로 차량을 유도하고 노원서 동료 교통경찰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조치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셋째로 노인분이 위험하게 도로를 걸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차 3대로 몇 번씩 주변을 확인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경기도 의정부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확인하던 중 장암 지하차도 앞까지 수 킬로미터를 정신없이 걸어가고 있는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순찰차로 2개 차로를 막고 이분의 두 손을 잡고 도로를 건너는 순간 얼마나 반갑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분도 표현은 안 하셨지만 저와 맞잡은 두 손에 힘을 꽉 주며 안심하시던 모습은 지금도 떠올리면 은은한 미소를 머금게 합니다. 다행히 이분은 가지고 있던 메모지에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중계동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20여 년 전 제가 경찰에 입직하고 신문사에 독자 투고를 했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된 아날로그식 방법이지만 실속형으로 치매 어르신을 쉽고 빠르게 찾아드리는 방법입니다. 현재 경찰서에서는 지문 등록 등

의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지만 그와 함께 아주 오래된 이 아날로그식 표식 방법을 기억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신속하고 빠르게 치매 어르신들을 보호자의 품으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우선 치매 어르신들은 팔찌나 목걸이 같은 거추장스러운 물건들을 벗어 버리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 해볼 때 치매 어르신을 찾는데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자주 입고 다니는 옷의 옷단, 옷소매, 옷깃이나 자주 신고 다니는 신발의 발등, 모서리 부분에 잘 지워지지 않게 매직으로 연락처와 주소를 적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가족을 찾기 위한 불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위험한 자동차전용도로 현장에서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노원서 교통경찰관들은 사고 예방과 신속한 출동을 위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이 방송에 나간다면 순찰차가 출동할 때 ‘모세의 기적’과 같이 항상 아낌없이 양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운전자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 또한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원서 교통경찰관들은 언제나 신속하게 사건 현장에 출동하겠습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근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etter 09

조선소에서 쌓은 정

박순복 |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회사에서 내 호칭은 이모, 아줌마, 여사님, 가끔은 실장님으로 통한다. 난 이 중에서 ‘이모’라는 호칭이 가장 정겹고 가장 많이 불린다.

난 조선소에서 세탁실을 담당하고 있다. 작업자들이 거대한 배를 만들다 땀과 기름, 췌물로 얼룩진 옷들을 세탁 공장으로 보낸다. 이튿날 세탁된 옷이 도착하면 나는 위아래 짝을 맞춰 개면서 해진 옷은 수선하고 단추도 달아서 곱게 접어 수납장에 넣는다. 어떨 땐 용접 불뚱으로 제법 타버린 작업복을 보면서 ‘혹시 화상을 입진 않았을까’ 걱정하며 확인해보기도 한다.

난 출근이 아침 7시다. 세탁실 문을 열면 기다렸다는 듯이 부서원들이 자기 옷을 찾아간다. 말끔하게 갈아입고 각자 현

장으로 가면서 또다시 더러워진 옷을 맡긴다. 세탁물을 받으면서 “수고하세요” 서로 정겨운 인사를 나눈다.

7시 55분이면 힘차게 울려 퍼지는 체조 구령에 맞춰 체조하고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각자의 일터로 향한다. 삶의 무게를 당당히 지고 향하는 그들이 너무 멋있다. 난 그들의 등을 보면서 항상 기도한다. 오늘 하루도 안전사고 없이 행복한 귀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차게 들리는 용접 소리며 어마어마한 크레인이 그 무거운 쇳덩이를 옮기는 모습, 도장부 아줌마들은 페인트칠하면서 각자 일에 최선을 다한다. 난 절대 못 할 것 같은 일들을 그들은 거뜰히 해낸다. 모든 이의 수고와 땀이 하나 되어 거대한 배가 완성되고 바다에 띄워지는 모습을 보면 ‘기술’이란 이런 거구나! 새삼 깨닫게 된다. 세계 속의 한국이란 단어가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한 지도 어느덧 20년. 이제 곧 정년퇴직을 한다. 직장 생활이라곤 해본 적 없던 내가 조선소에 들어와 내 가장 눈부신 시절을 여기서 보냈다.

남편이 조선소 정직원이었지만 아이 둘 대학 등록금을 대려니 힘에 부쳤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 동생 권유로 입사했다. 회사 일이 다 그렇듯 무조건 맡겨지면 해야 했다. 처음엔 재봉틀이 서툴러 바늘에 손가락도 많이 찔렸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보내다 보니 어느새 이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젠 못 할 게 없다. 힘들게 쌓은 경력이 힘이 되어 뭐든 척척이다.

현장에서 수고하는 양이 너무 커서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그들이 불편함이 없었으면 한다. 때론 작업복이 아닌 다른 옷

을 가져와 아쉬운 소리를 할 때도 군말 없이 다 받아주는 이 유다.

난 이 일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걸 느끼게 됐다. 가장이란 무엇인가? 삶의 무게를 지고 그 힘든 일을 서슴없이 한다. 여름엔 철판이 달아서 살이 델 정도이지 않은가? 지구 온난화로 여름은 유독 길고 더워졌다. 오전 내내 흘린 땀으로 범벅이 된 옷을 점심시간마다 핸드레일에 말려두는 모습을 본다. 땀 흘린 자리마다 소금 자국이 하얗게 드러난다. 그렇게 대충 말린 옷을 입고 다시 오후 작업을 한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땀 흘리는 그들이 한없이 자랑스럽다. 난 이들이 흘린 땀 냄새가 싫지 않다. 밖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조선소 남자들의 홍보대사가 되고 그들의 노고를 전파하며 남편들한테 잘 하라고도 한다.

요즘은 회사에서 아침밥까지 제공하니 너무 좋다. 예전엔 힘든 일을 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출근하는 그들이 늘 마음 아팠다. 근데 이제는 따뜻한 아침 먹고 샤워장에서 반신욕도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 보는 내 마음도 한결 푸근하다.

경조사 떡이라도 생기면 세탁실로 챙겨와 정을 나누는 작업자들.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 회사에도 작업자들에게도 정이 많이 들었다. 조선소 물이 깊게 들어서 나도 모르게 조선소 용어를 툭툭 쓰는 걸 보면 나도 굳건한 '조선소인'이 다 된 거 같기도 하다.

난 휴식 시간이면 꼭 회사를 위해 기도한다. 세계 속에 우



뚝 서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모두가 안전하게 작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 하나의 작은 관심도 배를 만드는 데 조금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퇴직하는 그날까지 조선소에서 보낸 내 소중한 세월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 이곳에서 쌓은 시간이 아름다운 여운으로 남기를 바라며 웃으며 떠나고 싶다. 참 즐거웠다고 정말 보람 있었다고.

Letter 10

아이들을 움직이게 한 힘

임혜선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올 해 6학년 담임입니다. 아이들을 웃게 하는 건 정말이지 쉽습니다. 아이들이 열광하는 쇼츠를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이걸 몇 초 몇 분 웃는 소멸성 웃음입니다. 아이들을 진짜 웃게 해주는 건 정말이지 어렵고 아이들의 마음과 몸을 움직이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어지간한 자극에는 무덤덤하거든요. 거기에 의미를 더할라치면 듣고 싶지 않은 잔소리가 되어버려요. 이런 아이들을 진짜 웃게 하고 싶고 진짜 움직이게 하고 싶어서 제가 택한 방법은 ‘가짜 경험’ 말고 ‘진짜 경험시키기’입니다.

사회 과목에 ‘민주주의와 시민’에 대해 나와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참여하는 건 중요하다’라고 백 번 외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약해서 지방 선

거가 끝나자마자 기표대, 기표소, 투표함을 빌려와 ‘모의 용인 시장 선거’를 했습니다. 다른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시장 후보들의 연설도 듣고 투표소에서 도장 찍어 투표하고 개표까지 했습니다. 한 표 차이로 1번이 당선되었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와, 쫄깃하다. 진짜 한 표 차이로도 떨어지네. 내 한 표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 아이들은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어른이 되어 투표장으로 가겠지요?

그리고 국어 5단원에 ‘주장하는 글쓰기’가 나와요. 맨날 서론, 본론, 결론에 무슨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딱딱하고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얘들아, 이 단원은 진짜 써먹을 데가 많아.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맞아. 근거를 갖추어서 제대로 설득! 그런데 선생님이 육포와 김을 샀는데 같이 뜯어볼래?”

“선생님, 김이 부서지기 쉬운데 김에는 트레이가 없고 육포는 단단한데 트레이가 있어요.”

“그래? 그럼 환경을 생각할 때 누구를 설득시킬까?”

아이들은 육포 회사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이렇게 25명 모두 열심히 참여하는 건 참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이들 편지는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으로 보냈죠. 주말이 지나고 육포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이 써준 편지 한 장 한 장 모든 직원과 봤습니다. 트

레이는 제품을 안전하게 전하고픈 노력이었는데 우리가 환경 문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귀한 깨달음 고마워요. 개선 하도록 노력할게요.>

아이들은 이렇게 답장을 쓰더군요.

<진짜 이렇게 답장을 보내주실 줄 몰랐어요. 정말 좋은 회사 같아요. 저, 이 회사 육포 애용할래요.>

아이들은 앞으로는 요구할 게 있으면 떼쓰거나 침묵하지 않겠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걸 연습했으니까요.

실과 시간에 ‘우리가 재배한 농작물로 음식 만들기’가 나와요. 그냥 만들어 먹고 끝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미션을 줬어요.

- 우리가 키운 바질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팔자.

- 그 수익금은 어떻게 할까?

13년 인생 동안 음식을 만들어 본 적도 팔아본 적도 수익금이 발생한 적도 없기에 아이들의 회의는 이어졌어요. 저는 ‘기부’라는 단어를 슬쩍 꺼냈죠. 작년에 맡았던 3학년 아이들이 아나바다 장터를 열고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선품기 6대를 기부한 일도 들려주었고요. 이리하여 우리 반은 아름다운 일을 감행했어요.

1. 메뉴를 정하고 홍보지를 만들어 널리 알린다.

2. 음식을 정성스레 만들어 판다. (단, 용기를 가져온 고객에게는 할인해 드린다.)

3. 수익금을 원하는 만큼만 기증한다.

4. 기증한 돈으로 물건을 사서 독거 어르신을 돕는다.

우리 반 25명이 판 금액과 스스로 기부한 돈까지 무려 30만원! 용인시 노인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세 가정을 선정했고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5명이 마트에 가는 사람으로 뽑혔어요.

“야, 리모컨 선풍기는 할아버지가 하기 힘드셔. 버튼식이 좋아. 색깔은 흰색이 낫지. 브랜드도 잘 봐.”

“한 가정 당 10만 원이니까, 남은 돈으로는 유산균, 두유, 과자 그리고 견과류 어때? 참 복날이니 삼계탕도 사드리자!”

얼마나 알뜰살뜰 장을 보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은 물품을 전하러 서로 가고 싶다고 했지만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 또 치열한 가위바위보 끝에 가는 팀 5명이 결정됐어요.

5명과 제가 앉기에 좁은 집이었지만 아이들은 어르신께 준비한 영상 편지를 보여드리고 리코더 연주도 들려드렸지요. 그 사이에 선풍기가 조립되어 시원한 바람이 나왔어요.

“있는 선풍기가 오래되어서 합선될까 봐 조마조마했어. 이리 선풍기를 사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고마워!”

혼자 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학교로 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이 말했어요.

“내가 그날 오렌지 착즙 주스 만드느라 땀 흘린 보람이 있네~”

“아, 돈 많이 벌고 싶다! 집이 너무 좁고 안 좋아서 아파트 사드리고 싶어!”

사실 어르신 댁으로 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쇼츠 보며 킬킬대던 녀석들이 올 때는 사뭇 표정이 달랐어요.

사실, 이런 일은 안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엄청 번거롭고



또 사고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일을 자꾸 할까요? 제 시간, 제 에너지 써가면서? 아이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한테 진짜 경험을 하게 해주시려고요!”

정답 맞아요. 진짜 사과 맛을 본 아이는 사과 동영상이나 사과향 불량식품 주스에 만족하지 않을 테니까요. 어디서 살 수 없는 진짜 경험을 맛보여 주고 싶고 그런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저는 오늘도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중일초 6학년 자주반 25명 우리 똥강아지들, 이 선생님 많이 아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연이 나가면 또 수업 자료로 쓸 거예요. ‘이 글쓴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이라는 주제로요!

Letter 11

파킨슨병과 사랑방

김금재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저는 68세로 6년 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파킨슨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파킨슨병. 이 병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불치병이고 온몸이 서서히 굳어지면서 말이 어눌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 병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소실되어 발생하는 만성 진행성 퇴행성뇌질환이래요.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야 몸의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몸이 정교하게 움직이는데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은 삶이 즐거워야 나온다고 합니다. 사는 게 힘들고 지루했던 내 삶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후 나는 종일 침대에 누워 잠만 잤습

니다. 마치 세상 끈을 놓은 듯 모든 것이 귀찮고 싫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사는 내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져 갔고 몸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우선 생활에 변화를 주어야겠다 싶어 다른 곳으로 이사부터 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려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어느 날 창문 넘어 들어온 햇살이 너무 고와서 밖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를 한참 돌고 있는데 어느 분이 반가워하며 내 손을 잡으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분 또한 나처럼 사는 게 재미없다고 푸념을 늘어놓으셨고 나이도 처지도 비슷한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음날부터 우리 집에 놀러 오며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불임성이 많고 이해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우리 집은 어느새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들으며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위로도 하고 답소를 나누는 작은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서서히 내 삶은 즐거워져 갔습니다.

집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할 만큼 몸이 많이 불편했지만 내 불편한 몸을 대신해 친구들과 동생들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두 달 동안 매일 점심을 해온 보리 엄마,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고 설거지를 해주는 108동 친구,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싸 오는 동생들.

우리 집은 어느새 웃음꽃이 피고 생기가 넘치는 집으로 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처럼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이면 부침개를 부칩니다. 그러면 냄새 맡고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곧 거실이 가득 찹니다. 별맛도 없는 부침개를 놓고 맛있게 먹으며 뭐가 그리 좋은지 서로 바라보며 깔깔대고 웃으며 좋아합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믿는 나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작은 사랑방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키운 상추, 고추, 호박을 따서 정겹게 나눠 먹는 사랑방에서 우리는 세상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즐겁게 보냅니다.

만일 이 글이 채택된다면 우리 사랑방에서 작은 잔치를 할 생각입니다. 부침개 부쳐놓고 막걸리 한잔하며 ‘그동안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살아왔노라’라고 치하하고 ‘인생 별거 아니니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고 너스레도 떨겠지요.

그런 날이면 희은 언니와 함께 부침개를 먹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Letter 12

화병 예방

애청자



이른 새벽 책 읽으려다 여성시대에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화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글이라도 쓰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남편 월급 쪼개서 생활하는 현모양처를 꿈꿨으나 봐요. 그런데 결혼 생활 33년째인데 단 한번도 남편 월급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실직했을 때는 당연히 한 푼도 못 받았고 직장에 다녀도 자영업을 해도 언제나 저한테는 월급봉투가 아니라 용돈 주는 게 전부였어요. 월급 중 대략 37% 정도 떼어주더군요.

저는 그 돈으로 보험료랑 휴대폰 요금,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남겨서 저축했어요. 적은 액수여도 목돈이 만들어지

면 은행으로 달려가 정기예금 통장 만들고 그러면서 집 대출금을 조금씩 조금씩 갚아 반으로 줄여놓았죠.

그런데 대출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는 저의 그 작은 즐거움을 남편은 빼앗더군요. 어느 날 주식 한다면 대출을 더 받아서 반으로 줄여놓은 대출금을 다시 원상태에 가깝게 늘려 놓았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퇴직금조차 혼자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데 화가 납니다.

그 돈은 집 대출금 갚는 데 사용했으면 했는데 남편은 주식에 전부 쏟아붓고는 “앵? 왜 이렇게 내려가냐! 없어졌네. 하루 사이에 없어졌어~”라며 혼잣말을 하는데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아 모른 채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 저는 남편에게 말했었어요.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집 대출금 갚으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대출금은 어차피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같이 갚는 거라 괜찮다’라는 망언을 하고서는 결국 그 목돈을 주식에 쏟아부은 겁니다.

월급봉투 준 적 없고 퇴직금까지 전부 혼자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남편! 설거지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울화통이 치밀고 화가 납니다. 전에는 용돈이라도 받았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배부른 소리 하는 건가요?

Letter 13

제라늄 나눔

최순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벌써 며칠째 반려 식물을 정리하면서 오래 정들었고
 약 20년 가까이 키운 식물들을 떠나보내고 있다. 이
 사라는 현실과 새로운 보금자리인 새집엔 베란다가 없다는
 단점이 있기도 해서 보내고 있다.

이별할 식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파키라, 다육식물, 인삼 벤
 저민, 난, 고무나무, 수경 재배 식물인 스킨답서스 등 그 이름
 의 종류를 나열하니 약 50가지 정도가 된다.

이중 파키라와 제라늄이 눈에 띄었다. 오빠가 준 파키라는
 거의 약 20년을 자라 베란다에서 작은 숲 역할을 했다. 우리
 집에 놀러 온 아이들은 우리 파키라를 보면서 이 집의 수호
 신이라고 불렀다. 그런 파키라를 남에게 맡길 때는 손끝이 떨
 리고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 이 아이 키랑 무게가 엄청나네요. 제가 데려가서 잘 키워볼게요~”

다음으로 눈물이 나오는 식물은 영혼의 단짝 같은 제라늄이다. 이미 작고한 지인의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 같은 식물이기도 했다.

초록 잎이 넓고 냄새가 안 좋아 곤충이 기피하는 식물인 제라늄은 여러 해 분홍 꽃망울을 피워 나와 이웃들에게 웃음을 주었다. 물만 주면 탐스러운 분홍 꽃에 꽃밥이 무성했던 제라늄이다. 다른 식물들은 다 시들시들해도 제라늄만은 싱싱했다. 그만큼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지인에게서 받은 그 제라늄을 약 12년 정도 키웠다. 오랜 세월 키우다 보니 제라늄이 거의 나무처럼 잎이 무성했고 풍성한 꽃을 보는 즐거움도 있었다.

얼마나 잘 크던지 물만 먹으면 저절로 꽃을 피웠다. 자라는 잎 모양이 마치 둥근 쟁반 같아 너무 귀여웠다. 분홍색 꽃은 마치 잘 익은 복숭아의 넓은 이마처럼 탐스러웠다.

제라늄이 클 때마다 줄기나 가지를 잘라 뿌리를 내리게 하는 꺾꽂이 작업을 자주 해서 지인들에게 나눠주었다.

나에게 처음 제라늄을 준 지인이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나서 키우던 제라늄이 죽었다고 해서 다시 내 것을 꺾꽂이해 주기도 했다. 아파트 근처 정육점 사장님에게 드린 제라늄은 가게 앞에서 당당하게 잘 크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식물이 바로 제라늄이다.

그런데 한 번은 안 좋은 일도 있었다. 나눔 장터에서 약간의 돈을 받고 제라늄을 나눔하러 갔는데 거래를 약속했던 분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나눔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때 가져간 제라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냥 가져가도 되는 것을 내가 돈을 달라고 해서 그랬을까? 다음날 마음을 추스르고 다른 분에게 나눔을 요청했다.

“어머나, 예뻐라. 이것 말고 다른 제라늄도 있나요?”

알고 보니 그분은 꽃 마니아였다. 남편이 꽃 좀 그만 키우라고 말해서 남편 몰래 사러 오셨다고 했다.

그렇게 두 개의 제라늄 모두 좋은 주인에게 떠나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었다. 이사 가야 해서 그냥 무료로 제라늄을 가져가시라고 말했더니 고마움을 표시로 문 앞에 싱싱한 당근을 걸어 놓고 가신 거다.

이제 나는 나를 살리고 이웃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제라늄의 모체만 가져가려고 한다. 새로 이사 갈 집이 분명 베란다도 없고 식물 키울 환경이 안 되는 좁은 집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제라늄만큼은 살려 보리라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제라늄의 꽃말처럼 ‘애정 어린 마음’이 나의 제라늄을 나눔 받았던 식물 애호가들에게 가득하길 바라본다.

이달의 손편지

할머니와 외손녀의 대화

옛종로 /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날씨가 무척이나 따뜻해질 수 있길래 할아버지
방문에 일찍 시켜놓고 할머니의 스구셋과 함께
우레처럼 왔다.

다시한 번에 보내고 할머니 외롭다며 자고 간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즐겁게 놀았는지 알아
볼지도 과감하고 지켜보았다.

오랜만에 이야기하다보니 밤 11시가 다 되었다.
친구랑 통화중인 할머니만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와
잠잘 준비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할머니는 등리를 걸치고 방으로 들어왔다.
문고에 걸려있는 옷은 풍덩그런 괴로가 더 잘
들린다며 딸에게 말했다. 문고함에 들어가며
언니가 아현이 좀 제와주면 좋겠다는 할머니의

말에 활짝 웃음을 짓고 있을 때였다. 손을
유도했지만 평소에 접이없는 아형이든 손을흔지
못하고 끔찍한 거렸다 활무니 활무니 힘이 붙어
선어갈것처럼 들렸다. 왜 인자 활무니는
물러났냐며 앓더니만 흐뭇흐뭇한 눈방울이 나를
저녁으로 말렸다.

활무니 있었어요. 거품이라는 것은 흐름에 비유한
다면 흐름의 종류가 한가지만 있으면 지루하고
맛이 없듯이 여러종류의 흐름이 모여있을때 맛이
더날수 있고 아무리 맛있는 김밥이라도 음식료가
하나만 빠져도 맛이 없을수있어 결국 여러 종류의
흐름처럼 김밥속의 음식료처럼 모두가 함께
용이종이 모여 저장해주고 위로해주고 기쁘게해주고
하루게 기쁘게살아. 그러니까 활무니랑 나도 연마
보다 먼저 접을지 알고 기뻐했다가 같이 접다면
연마도 감동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하면서
먼저 접을지 알고 애가나하잖아. 사랑을 마치고
나온 활마이가 이제 인자냐며 나무냈다. 고맙게
살아있는 눈방울 접이든왔다. 활무니 활무니 또

들어왔다. 할머니한테 묻게 됐지. 왜냐면 또
 시집이라 할머니랑도 같이 사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는
 고릴랑고야 아니라 강아지랑고야. 할머니
 물었지? 응 물었지. 그 강아지는 왜 친구가
 되었을까? 할머니가 고릴랑고랑고야랑 같이
 살고라고 저랬다.

그런데 할머니 진짜 친구는 할머니한테
 된 친구가 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 진짜 친구랑
 할머니 친구가 다르지.

그 친구랑 친구 중에 진짜 친구를 찾으면
 친구랑 두번 찾아야 진짜 친구가 친구를 써
 고릴랑고.

그런데 할머니 진짜친구를 찾으면 아들이랑
 도는가를 할머니 써주는 친구랑 아들이
 오늘도 친구가 친구가 하며 등을 두들기
 자자고 웃었다 또 말했다.

할머니 혹시 친구친구는 언제
 저한테 찾아올까? 구구구구구
 다시 물어봐 안다.

고부들이 커 쉼렁거렸다.

할머니 저게 이대로도 공개황제랑 결혼한 줄여
주시면 안될까봐서 줄여달랐다.

몇번을 수정 끝에 언니가 할아버지 선처리에
누워말았다.

할머니 외상받은 . 오늘도 저편에 쉼렁거렸?
혹시나 할머니도 할아버지 걱정되셔서 산도 못수복하고
생각 많이 할까봐 기침에도 참고 숙제도 내 드셨다
조용하다. 그 다음 조그마한 입 언니가 쉼렁거렸
그 쉼렁거렸한 눈망울이 생각났다.

예화중에 흐뭇하고 김빠진 거품에 싸여하며 말한
여학생이 아현이와의 예화가 너무나 재미있고
놀랐고 느끼며 나도 잠자리에 들었다.

사랑하는 아현이 저금처럼 책상이 열리고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설 자라수있으리라
하고 할머니는 바라본다.



여성시대 사진방



[7842] 손자 둘이 방학해서 안동 시골에 와서 일주일 만에 갔는데 날은 덥고 너무 힘들긴 했는데 가고 나니 섭섭하네요. 집안이 절간같이 조용하네요.



[1803] 오늘도 뜨거운 태양 아래 사과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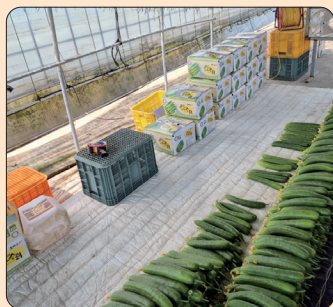
[8424] 김장용 배추 모종입니다.



[8158] 우리 집 다육이들입니다. 아침마다 다정하게 인사하면 귀여운 꽃으로 보답하는 예쁜 말벗입니다.



[4655] 부산 부전시장입니다. 늘 함께 장을 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6982] 오이 하우스입니다.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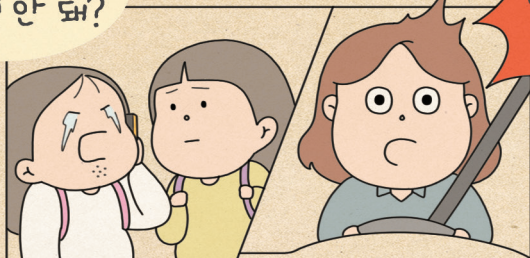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의

여성시대 가족 담당이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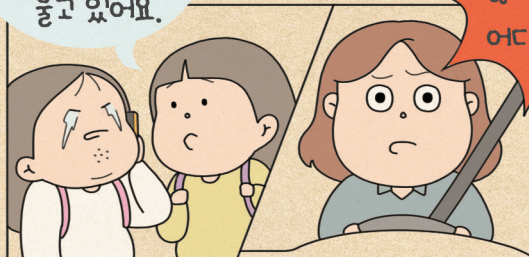


엄마 지금 어디야?
지금 오면 안 돼?



왜!?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이모 지만이가
그네에 다쳐서
울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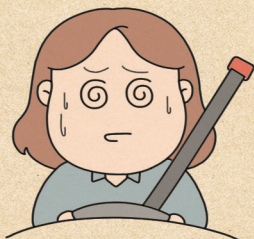


뭐라고?
많이 다쳤어?
어디를 얼마나?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 혼자 등교를 하는 딸이
친구들과 등굣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
친구의 발에 얼굴을 맞아 다쳤다는 전화를 받았다.

출근길 운전 중이었던 나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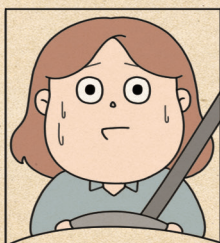
돌아가려면
20분은 걸리는데?



회사엔
뭐라고 말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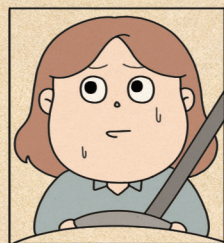
그러다 정신을 다잡았다.

우선 딸을 안심시키고 회사에도 전화를 했다.



지민아 엄마 가려면
20분 정도 걸리니까
집에 가서 기다려.
알았지?

대표님 딸이 등굣길에
좀 다쳤다고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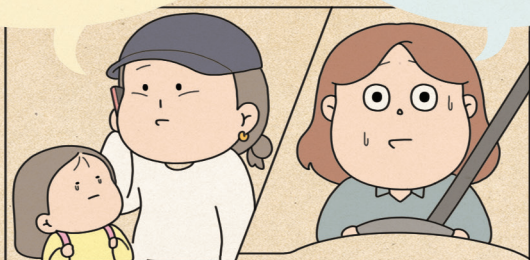


OO씨 지금 딸이 좀
다쳤다고 해서
내가 좀 늦을 것 같아...

땀을 뻘뻘 흘리며 운전해서 돌아가는 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저 1302호 주민인데요.
아기가 학교 가다가 돌아오더라고요.
혼자 가면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데려다줄까요?

아이가 친구랑 그네 타다가
좀 다친 모양이에요.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가니
아이는 무서운지 티브이를 틀어놓고
애착이불을 껴안고 울고 있었다.



이산 가족 상봉을 하듯 우리는 껴안고 울었다.

그날 저녁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진이 빠져 앉아있노라니
입가에 싱긋 미소가 지어졌다.



얼른 아이한테 가봐.
운전 조심하고!
회사 걱정 말고!



마음 편히 다독여준 대표님

아이를 걱정해 주던
1302호 이웃분



소현이 때문에
지민이가 다쳤다면데
지민이 좀 괜찮아요?



아이스크림 쿠폰까지 보내주며
우리를 달래주던 아이 친구의 엄마

온몸이 땀으로 젖을 만큼 힘든 날이었지만
한 아이가 크려면 온 동네가 도와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는 따뜻한 저녁이었다.



행복을 찾는 사람들

환경을 생각하다



IBK기업은행 성서지점 거래고객

(주)제일환경 권재훈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산업 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 산업폐수 및 폐기물처리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전국에 50여 개 남짓한 희소한 업종을 30여 년간 이어온 (주)제일환경은 과감한 투자와 기술 고도화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2세 경영을 통해 젊은 감각과 혁신을 더하고 있는 제일환경을 소개한다.

(주)제일환경은 대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제조 공장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를 수거·운반하여 자체 시설을 통해 정밀하게 처리 및 방류하는 전문 폐수 처리 기업이다. 1992년 설립 이래 30여 년이 넘게 대구·경북 지역의 산업폐수 수탁 처리를 담당해 왔다.

폐수 수탁 처리업체는 전국적으로 50여 개 남짓할 정도로 진입장

벽이 높고 희소성이 있는 업종이다. 제일환경은 대기업을 비롯해 금속 가공, 화학, 식품 공장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액상 폐기물 및 산업폐수를 탱크로리 차량으로 수거·운반하여 안전하게 정화·배출하고 있다. 특히 하수 처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RO(역침투막) 시설 등 타사에서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고가의 고도화 처리 장비를 적극 도입하



여 일반적인 물리·화학적 처리로는 한계가 있던 고농도·특수 폐수까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량을 확보했다.

제일환경은 창업주인 아버지가 일궈온 사업을 10여 년 전 아들인 권재훈 대표가 이어받으면서 2세 경영을 시작했다. 권재훈 대표가 회사를 운영해 온 10년 동안 회사 매출이 2배 가까이 상승하며 안정적인 경영 실력을 인정받았다.

직원의 노고를 배려하는 기업 문화와 노사 간 두터운 신뢰는 규제

산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일환경을 유지해 온 가장 큰 원동력이다. 실제로 전체 인력의 30%에 달하는 직원이 2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있을 만큼 조직의 안정성과 숙련도를 자랑한다.

규제 산업 특성상 시설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고, 자주 바뀌는 법률 및 시설 확장 과정에서 엄격한 허가 절차와 제재를 받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제일환경은 이러한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분석 전문 자회사 설립, 폐기물 중



합재활용업체 인수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단순 폐수 처리에 그치지 않고 환경 분석 및 폐기물 재활용까지 아우르는 ‘종합 환경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또한 IBK기업은행과의 자문 계약 체결 등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사들에게 차별화된 환경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성서지점 손익수

지점장은 “제일환경은 회사 설립 초기부터 IBK기업은행과 인연을 맺어 2세 경영체제로 전환한 지금까지 꾸준히 함께해 온 가족 같은 기업”이라며 “경제 발전과 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하여 환경 보전에 앞장서는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근 제일환경이 관련 분야의 기업을 M&A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 정보와 정책 자금 등을 적기에 제공했다"라며 "앞으로 제일환경이 안정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사업 확대에 필요한 경영 및 세무 컨설팅과 최적의 금융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사업 다각화, 그리고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환경 분야의 양성화를 이끌어가는 제일환경의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IBK기업은행 성서지점 손익수 지점장(왼쪽)과 (주)제일환경 권재훈 대표

❗ (주)제일환경 권재훈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시설 투자를 아끼지 마라.
2. 점차 강화되는 규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라.
3. 안주하지 말고 사업 다각화를 통해 발전하라.

(주)제일환경

대표 권재훈

전화 053-583-2483~5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67안길 10



여자는 모른다

- 77 거울 앞에서
- 83 천사의 방석
- 92 내 사랑 겁보

- 95 가장으로서 나의 점수는
- 100 면도의 즐거움
- 105 남자도 있다



일러스트 | 조신애

여자는 모른다

거울 앞에서

애청자

아침마다 세면대 거울 앞에 서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턱도 한 번 당겨 보고 고개도 이리저리 돌려 보고 조명도 슬쩍 좋은 쪽으로 맞춰 봅니다. 그리고는 혼자 씩 웃습니다.

“아직 괜찮은데?”

거울 속 저는 아직도 한 서른 중반쯤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제 눈에만요. 사실 거울은 참 정직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데 문제는 보는 사람, 제가 문제죠. 팔자주름? 못 본 척 합니다. 희끗한 옆머리? 그건 조명이 이상해서 그런 거고. 튀어나온 배?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면 안 보입니다.

“야, 너는 어째 나이를 안 먹냐? 아직도 젊어 보이네.”

남들이 인사말로 던지는 빈말 한 마디도 저는 철석같이 믿고 신이 납니다.

“에이~ 뭐~ 타고난 것도 있고 유쾌하게 사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이겠지.”

이러면서 괜히 너스레도 떨고 말이죠. 그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아내는 늘 한마디합니다.

“우리 집 자백왕자님~ 또 시동 거셨네.”

자백왕자님? 처음엔 그 별명이 억울했습니다. 근데 자꾸 듣다 보니 은근히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저는 꽤 오래전부터 자백 속에 살았거든요.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데 저만 살짝 예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말이지요.

제 착각이 절정에 달한 건 몇 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후드티와 청바지에 모자 폭 눌러쓰고 동네 봉어빵 가게에 줄을 섰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에 만 원을 내밀었는데 봉어빵집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뵈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학생, 공부하느라 힘들지? 내가 기특해서 한 마리 더 넣었어.”

학생? 학생이요! 순간 제 귀에서는 축포가 터졌습니다. 손을 바라보는 사람한테 학생이라니? 그 말쑥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찬사였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봉어빵 봉투를 흔들며 집에 뛰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여보, 나 오늘 학생 소리 들었다!” 아내를 불러 세워놓고 마치 대단한 훈장이라도 받은 양 신나게 떠들었지요. 그러자 아내가 피식 웃으며 그러데요.

“그 아주머니, 장사 수완이 대단하시네. 말 한마디로 단골

손님 하나 잡으셨잖아.”

“아니 내가 진짜 학생처럼 보였을 수도 있잖아?”

“여보~ 착각 좀 하지 마. 정말 당신이 어린 학생으로 보였겠어? 그냥 아저씨가 후드티 입고 있으니까 ‘아, 젊게 살고 싶으신가 보다’ 장단 좀 맞춰주신 거야. 자백왕자님, 정신 차리세요.”

솔직히 반박은 못 했습니다. 그게 아주머니의 고단수 영업 기술이었는지 정말 후드티의 마법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저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아니면 후드티만 입습니다. 후드티만 걸치면 괜히 어깨가 으쓱 어려워지는 기분이거든요. 그렇게 혼자 아주 만족스럽게 착각하며 살던 저에게 얼마 전 아주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진짜 번개 한번 하자.”

20년 만에 PC통신 시절 친구들이 다시 모이게 된 겁니다.

“야, 이게 얼마 만이냐~”

“그러게. 한 20년만인가?”

한때 인터넷 채팅창에서 닉네임 하나로 밤새 고민을 나누고 정을 쌓았던 멤버들. 그때 다들 사회 초년생이거나 서른 안팎의 팔팔한 청춘들이었는데 ‘언제 한번 보자’ 하던 말이 빈말처럼 20년을 떠돌다가 다들 오십 줄에 접어들어서야 부부 동반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솔직히 식당에 가는 길까지는 참 설렘했습니다. 다들 금방 알아보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식당 문을 딱 여는 순간 제가 멈춰 섰습니다.

“어? 여기 맞나?”

제 기억 속에는 스물아홉, 서른 살의 우리들이 있었는데 눈 앞에는 중년의 신사 숙녀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깊어진 주름, 제법 나온 배, 코끝에 걸친 돋보기까지. 순간 방을 잘못 찾아 온 줄 알았습니다.

“여보, 저기 구석에서 돋보기 쓰고 메뉴판 보는 분은 누구셔? 채팅방 방장님이신가?”

“아니아~ 재는 내 단짝 ‘터미네이터’ 영수야. 재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늙었대?”

“당신도 똑같아~”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네! 영수가 저렇게 늙어 보인다는 건 나도 저만큼 늙었다는 얘기구나. 어색한 건 딱 5분이었습니다. 소주 한 잔 들어가니까 바로 20년 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야, 너 진짜 영수 맞냐? 나 아까 우리 아버지 친구분인 줄 알고 인사할 뻔했다.”

“웃기고 있네. 난 문 열릴 때 웬 사장님이 예약 확인하러 들어오는 줄 알았다. 너 닉네임 ‘질주본능’이었잖아. 근데 지금 배 보니까 완전 휴식본능이네. 요즘은 안 뛰냐? 질주 안 할 거야?”

“야, 질주본능은 무슨 계단 두 층만 올라가도 헉헉댄다.”

“내 말이~ 이제 나는 일기예보도 안 봐. 내 무릎이 제일 정확하거든. 보자 보자~ 야, 내일 비 온다. 지금 살짝 쑤시네. 강수확률 70% 본다.”

“아이고~ 우리 터미네이터 무릎에 기름칠 좀 해줘야겠네.”

한바탕 웃음이 터지고 이어진 호구조사.

“자자, 혈압약 먹는 사람 손?”

“나! 나나나나!”

“탈모약 먹는 사람?”

“그것도 나! 나! 야~ 당연히 먹지~”

“돋보기 없으면 메뉴판 안 보이는 사람?”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난 그런지 꽤 됐어.”

그 모습을 보는데 웃졌습니다. 예전엔 누가 더 잘생겼는지, 누가 더 인기 많은지만 따졌는데 이제는 혈압이 몇인지, 콜레스테롤이 얼마인지, 무릎은 괜찮은지가 최대 관심사더라고요.

“야, 이번 건강검진에서 용종 몇 개 나왔냐?”

“나? 다섯 개.”

“앗싸! 내가 이겼다. 나는 8개 나왔다.”

또 다 같이 폭소. 그렇게 한참을 웃고 떠들다 보니 참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머리는 희끗해졌는데 웃는 모습은 다들 그대로였거든요. 말 끊고 들어오는 버릇도 그대로 별것도 아닌 얘기에 배를 잡고 웃는 것도 그대로. 몸은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시절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알았습니다. 젊음이라는 건 팽팽한 얼굴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검은 머리카락에만 있는 것도 아니구나. 주름이 생기고 배가 좀 나와도 마음속에서 반짝이는 어떤 것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구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아내는 꾸벅

꾸벅 졸고 있더군요. 신호를 기다리는데 문득 룸미러에 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아침마다 애써 못 본 척하던 얼굴. 주름도 보이고 희끗한 머리도 보이고 세월이 지나온 흔적도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얼른 시선을 돌렸을 텐데 그 날은 이상하게 그 얼굴이 오히려 괜찮더라고요.

“그래. 이 정도면 잘 살아왔네.”

처음으로 거울 속 제 얼굴에 그 말을 해줬습니다.

“응? 뭐라 했어?”

“아니야~ 그냥 자자. 도착해서 깨워줄게.”

잠든 아내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에서도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집안을 지키고 저를 견디며 살아온 시간이 다 느껴지더군요. 고맙고 미안하고 또 든든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자백왕자인 내가 이제야 철이 드나 보다. 우리 참 예쁘게 잘 늙었다. 그치?’

이제는 알겠습니다. 젊음은 거울 속에 억지로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잠깐의 착각 속에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름은 세월이 준 벌칙이 아니라 웃고 울고 버티며 살아낸 시간의 훈장이고 겉모습은 조금 빈티지해졌을지 몰라도 마음의 엔진만큼은 아직도 뽕뽕한 50대. 우리의 생기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온기 속에 살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저는 거울 앞에 설 겁니다. 아마 또 ‘아직 괜찮은데?’ 하고 웃겠죠. 다만 이제는 거울 속 얼굴보다 제 옆에서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먼저 보려 합니다. 이 마음 잃지 않고! 힘차게 걸어가 보렵니다.

여자는 모른다

천사의 방식

애청자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셀 수도 없는 선택과 후회의 반복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 간밤에 야식을 먹지 말아야 했는데!” 이런 무한 반복 속에서 인생의 재미가 생기는 법이죠. 오늘은 저에게 ‘계산되지 않은 일탈’ 그 너머에는 필히 엄청난 대가가 뒤따른다는 걸 가르쳐준 30년 전 고3 시절의 그 뜨거웠던 밤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한 시절도 그리지 않은 때가 없겠지만 제게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는 시간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입니다. 단 한 번의 시험인 학력고사로 모든 것이 결정되던 때 당시 우리 반은 전교 꼴찌를 도맡아 하던 개성 강한 아이들의 집합소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학교가 거의 포기한 다섯 명의 진짜 고수들이 있었으니 사람들은 우리를

‘죽림오현’ 혹은 ‘5인의 파산자’ 또는 ‘5인의 저격수’라 불렸습니다.

4시간 이상 딱딱한 나무 의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잠들 수 있었던 수형이. 학교 역사상 전 과목 평균 한 자리 숫자라는 전설을 만들어낸 우재. 수업 시간마다 여학생들이 찾아와 선생님을 당황하게 만들던 순기. 실장이 자리를 비우자 평생의 업을 이룬 것처럼 권한대행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호영이.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들과 함께하게 된 저까지. 큰 사고를 치는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출근하면 학생과와 교장 선생님께 불러 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어느 순간 저희를 보며 해탈한 듯 말쑼하셨습니다.

“또 너희들이냐? 오늘은 좀 조용히 넘어가자. 그리고 제발 걸리지만 마라. 힘들다.”

그런 저희에게도 대학이라는 현실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지자 친구들이 먼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야, 너는 이제 여기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야 뭐 그렇다 쳐도 너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 우리 중에도 대학물 먹은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죽림오현 체면이 서지 않겠냐?”

장난처럼 시작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야, 니들 오늘 왜 이러냐. 나만 어떻게 여기서 빠져.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우리도 한 번 해보자! 우리 다 고3 아니냐. 공부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날부터였습니다. 다섯 명의 저격수에게 조금씩 변화가 찾아온 것은요. 수업 시간에 자는 시간이 줄었고 야간 자율학습에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저희도 늦게나마 다른 고3들처럼 살아 보려고 선풍기 한 대 없는 교실에서 여름을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판 옆 날짜 판에는 어느새 D-DAY 1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른 가을밤, 하루하루 같은 일상에 지쳐갈 무렵 문득 ‘딱 하루만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의 일탈이 행복과 사랑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후회까지 데리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다시 모인 다섯 명의 저격수 사이에서 또 하나의 답 없는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딱 100일 남았다. 이런 역사적인 날에 우리 저격수들이 그냥 넘어가면 되겠냐?”

“그래. 뭔가 기념할 만한 게 있어야지.”

그때 잠자코 있던 우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이맘때는 말이야. 여학생이 앉았던 방석을 가지고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본다는 전설이 있다더라.”

순간 우리 다섯 명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깨어난 기행 본능.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냐? 그게 진짜라면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밤,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인근 여학교를 향해 아무 말 없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일탈인데 막상 그 길에 들어서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철없이 살아온 우리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순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후회할 쪽으로 가보자며 자신을 달래고 학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불이 꺼진 3학년 교실. 처음 와본 여학교 교실은 제 상상과 조금 달랐습니다. 요정들이 살 것 같고 좋은 향기가 가득할 줄 알았는데 우리 교실과 다를 바 없이 어수선했더라고요.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었지만 감상에 빠질 시간은 없었습니다. 한참 책상 속을 뒤지던 그때 드디어 방석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의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으악!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교실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거기 누구야?”

옆 교실에서 자율학습 감독을 하던 여고 선생님이 달려오신 겁니다. 다리는 굳어버렸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너희들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절체절명의 순간 역시 우리 팀의 해결사는 호영이었습니다. 실장 권한대행답게 앞으로 척 나서더군요.

“선생님, 저희는 밑에 학교 3학년 학생들입니다. 그게... 여기 방석을 가지고 있으면 학력고사를 잘 본다는 전설이 있어

서요. 죄송합니다. 다 제가 오자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잘못 없습니다.”

비록 권한대행이었지만 역시 실장은 실장이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은 크게 화를 내기보다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시간에 남의 학교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나. 너희들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일단 너희 선생님 오실 때까지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나도 옛날에 그런 거 해봤는데 효과 없어. 이럴 시간에 공부나 더 하자. 일단 따라와.”

선생님은 저희를 자율학습 중이던 3학년 교실로 데리고 가문을 열었습니다. 50여 명의 여학생 앞에 서게 된 순간 수십 개의 눈빛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얘들아, 잠깐 봐라. 학력고사 잘 보겠다고 너희들 방석 훔치러 온 용감한 녀석들이다. 구경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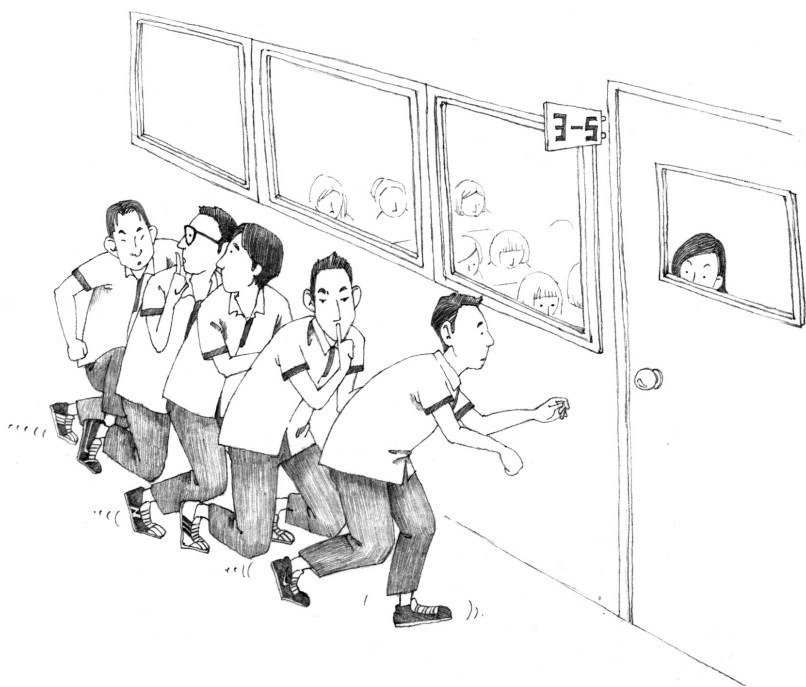
그 순간 죽림오현이니 5인의 저격수니 하던 우리의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아~ 그냥 교실에서 공부나 할 걸.’

한참 뒤 담임선생님이 허겁지겁 달려오셨고 여고 선생님께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데려가서 엄히 지도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어 조용히 선생님을 따라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혹시 형섭이 아니야?”

고개를 돌린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처음엔 길 잃은 천사가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초등학교 때 3년 동안 제 옆자리에 앉았던 첫사랑 짝꿍이었습니다. 공부를 어려워하던 시절, 제가 한글과 구구단을 알려주던 그 아이가 고3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알지?”

“그럼 알지. 너같이 착한 애가 그럴 리 없잖아.”

뜻밖의 말에 얼굴은 화끈거렸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서둘러 학교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문 앞에 도착한 담임선생님이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세워뒀는데. 오토바이가 어디 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선생님이 시동을 켜둔 채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올라오신 사이 누군가 그 오토바이를 훔쳐 가 버린 겁니다. 방석 하나 구하려던 짧은 일탈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아침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문 앞에 어젯밤 만났던 옛날 짝꿍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야,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나 이제 가야 돼. 그리고 이거!”

그 아이는 쇼핑백 하나를 제 손에 쥐여주고는 서둘러 뛰어갔습니다. 교실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방석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느새 고3이 됐구나. 어제 널 만나서 꿈꾼 듯이 정말 좋았어. 나한테 구구단 외우라고 들들 볶던 네가 맞나 몇 번이나 살펴봤지. 그렇게 다시 만나다니! 우리 운명인가

봐! 여학생 방식을 갖고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본다고 했지?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면 내 것이라도 주고 싶어. 판생각 말고 공부 열심히 해. 너의 제자이자 옛날 짝꿍이...>

편지를 읽는 순간 마음이 묘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저를 기억해 주는 소녀로 인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나는 너무 오래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온 건 아닐까?’

그날 아침 우리 다섯 명은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냐. 오토바이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일단 대학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

늘 장난과 농담으로 가득했던 우리 대화에 처음으로 진심이 담겼습니다. 그때 순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들아, 나 간밤에 깨달음이 깊다. 너무 깊어. 우리는 지금까지 동전의 한쪽 면만 보고 살아온 것 같아. 방향 잃은 충구를 가지고는 제대로 된 답을 맞힐 수 없지 않겠냐. 파산자의 낙인은 우리가 스스로 거둬야 한다.”

평소 같으면 웃어넘겼을 말이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다섯 명은 수업 시간에 자는 시간이 줄었고 야간 자율학습에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아니라 늦게나마 자기 인생과 싸우는 고3이 되어갔습니다.

100일. 남들보다 늦은 출발이었지만 그만큼 더 절박했습니다. 책상과 싸우고 졸음과 싸우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대학 입시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방석의 효험이었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리 다섯 명 모두 대학에 합격한 겁니다. 전 과목 평균 한 자리 숫자의 전설을 만들었던 우재까지 말이죠.

겨울방학 동안엔 건설 현장에 나가 알바도 했습니다. 선생님의 잃어버린 오토바이! 그걸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졸업식 날 하얀 눈이 내리던 학교 앞 우린 교문 앞에서 선생님께 오토바이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아이들의 환호가 울려 퍼졌고 거칠기만 했던 제자들의 마지막 선물에 선생님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방석 하나를 얻기 위해 찾아갔던 여학교. 그 짧은 일탈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 그날 만난 옛 짝꿍이랑은 어떻게 됐냐고요?

“여보, 세탁기 다 됐는데 안 넣고 뭐 해? 설거지도 잔뜩 쌓였잖아.”

“어휴~ 간다, 가!”

방석 하나로 엮인 옛 짝꿍은 이제 한 이불을 덮고 사는 평생의 짝꿍이 됐습니다. 천사 같던 짝꿍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네요. 어서 가 봐야겠습니다.

“응~ 여보, 갑니다. 설거지는 이미 다 했지. 빨래할 거 더 없어?”

여자는 모른다

내 사랑 겁보

애청자

평소에 의심과 겁이 많은 남편이라 큰 믿음을 갖지 않고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남편의 겁 많음을 실토해 볼게요. 결혼 전 데이트할 때는 남편이 겁 많은 줄 몰랐어요. 남편의 자취방에 가보니 군대에서 받았다는 온갖 배지가 붙여진 액자가 벽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금빛이 도는 훈장도 있었습니다. 군대 있을 때 유격훈련을 잘해서 받은 것들이라고 남편은 자랑했습니다. 태권도 유단자라 웬만한 성인 남자 서너 명은 거뜰히 물리칠 수 있다고 큰소리도 쳤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할 때면 든든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저녁 먹고 영화 보고 맥주 한 잔씩 마시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형님, 담배 좀 빌립시다.”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청년 3명이 우리 앞에 오더니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며 담뱃값을 얼른 쥐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냐? 니들, 이쪽으로 따라와 봐!”

남편은 제게 눈을 찡긐거렸습니다. 남편이 골목 모퉁이를 켄걸음으로 돌아서자 키가 큰 청년들도 어색한 몸짓으로 따라가더군요. 아무리 태권도 유단자라고 해도 학생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소리 죽여 살금살금 뒤따라가 보았어요. 여차하면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려고요. 청년 3명이 쓰러져 있을까?라고 살그머니 고개를 내밀어봤더니 남편이 지갑에서 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청년들에게 주면서 얼른 가라는 손짓을 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남편이 자존심 상해할까 봐 얼른 제 자리로 돌아왔지만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결혼해도 역시 남편은 겁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5층이라도 안심할 수가 없어. 가스관이나 빗물 홈통을 타고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거든.”

5층 아래를 바라보며 매일 문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병원에 갈 때도 저를 동반합니다. 저는 남편이 바쁘면 건강검진도 혼자 받고 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무조건 저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나, 주사 쇼크로 쓰러질지 모르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주사실로 들어가면서 비장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니 한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언젠가는 차를 타고 가던 중, 앞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급히 끼어들기를 하다가 또 차선 변경을 마구 하는 바람에 운전하던 저는 긴장이 되더군요. 남편은 사고 날까 봐 운전도 거의 하지 않아서 늘 제가 합니다. 그날 옆 차를 본 남편은 유리창을 내린 채 삿대질하며 험한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옆 차 문이 열리고 깣두기 인상을 한 남자가 문을 열며 “뭐? 뭐?” 하니까 남편은 옆에 있던 밀감을 내밀며 “이거 하나 드시라고요” 하더군요.

세월이 흐른 후 저는 느꼈습니다. 겁 많은 남편을 믿기보다는 저 자신을 믿기로요.

며칠 전에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밥을 급하게 먹는 데다 요즘 스트레스 받아선지 저녁때 온몸이 축 처지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119를 부를 수도 없어 거실에서 컴퓨터 작업하는 남편을 급히 불렀습니다.

“제한 거 같아.”

겁이 많아서 허둥거릴 줄 알았던 남편은 제 귀를 만져보더니 제 온몸을 주무르고 사혈침으로 손끝도 따주더군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서야 괜찮아졌습니다.

“내가 당신 생명의 은인인 거 잊지 마!”

이마의 땀을 닦은 남편은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겁 많아 보이는 남편의 태도는 겁이 많아서 몸을 사린 게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였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여자는 모른다

가장으로서 나의 점수는

애청자

저는 6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소개된 사연에서 남편 수입의 37퍼센트만 가지고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며 알뜰살뜰 가게 살림을 꾸려가던 중 빠른 방법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받은 주식 투자가 실패하여 마음고생하고 있다는 어느 여성분의 사연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연 소개가 끝나고 양희은 님, 김일중 님께서는 “남편분이 어찌하여 저럴 수가 있느냐?” “아내분은 남편분의 부당함을 어떻게 참고 생활을 해 오셨냐, 나 같으면 절대 참을 수 없다” “당장 이혼감이다” 등 격앙된 어조로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며 각자의 개성과 생각에

따라 행동한다고는 한다지만 같은 남성이자 가장인 저 역시 해당 사연을 듣고는 두 분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살림을 꾸려왔는지 참으로 대단하시다는 생각과 함께 남편분의 태도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노마저 생겼습니다.

만일 사연자의 남편이 ‘내가 내 돈으로 투자를 하든 말든 된 상관이나, 내가 무슨 범죄라도 저질렀느냐, 투자가 성공하여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큰돈을 벌었었다면 그때는 뭐라 할 것이냐, 투자가 실패했다고 이게 비난받을 일이나!’라며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다음으로 이어진 사연에서는 혼자만의 수입으로 여섯 대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근검절약하느라 그 혼한 피자 한 번 맘 놓고 사 먹지도 못하시던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을 캐나다 여행지의 어느 피자 가게에서 떠올리고는 어릴 적 아버지의 지나친 근검절약으로 제대로 된 외식 한 번 못 했던 원망도 있었으나 성인이 되고 나서는 가장으로서 고단했었을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책무에 대하여 애뜻함과 함께 감사한 감정을 느낀다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문득 과거 가난했던 70~80년 시절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삼 남매를 키워내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습이 함께 떠올라 가슴 한편이 아련해지기도 했습니다.

각각 2개의 사연에서 보이는 가장의 태도와 역할이 극명한 대비를 보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남편이고 가장으로 어떻

게 평가가 될지 뒤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직장인으로 근무하며 우리 시대 여느 가정
이 그러하듯 월급통장을 아내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고 적은
월급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푼 한 푼 아끼고 저축
하였으며 아내도 한동안 전업주부로 살다 아이들이 어느 정
도 크고 나서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여 경제에 보탬이 되었고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자 많은 노력 끝에 지금은 대출금 없
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적지 않은 현금 보유와 연금을 수
령하고 있으며, 퇴직 후 재취업하여 경제적으로는 자식들에
게 노후에 부담되지 않게 할 만큼은 준비해 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한창 일할 때도 가급적 아이들과 함께하려는 노
력도 기울였으며 가정일이나 교육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습니다. 다만 교육 과정에서 아이들 학업과 관련하여 아
내와는 상반된 의견으로 다투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아이가 학원 가기를 싫어하고 학원 수강을
빠지게 되면 학원 수강을 빠지게 된 이유나 배경, 학원 수업
에 대한 아이의 의견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
다는 관점인 반면 아내는 “아이들의 의견 존중도 필요하지만 아
이들은 놀기를 좋아하지, 공부가 좋아서 하려는 아이가 얼마
나 있느냐. 설령 아이가 공부가 싫고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해도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
라 공부도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이의 학
업 성취는 좋은 학원의 수강과 좋은 선생님께서로부터 받은 과
외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아내의 의견에



따라 일찌감치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도 하고 좋다는 학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내의 노력인지 작은아이는 소위 SKY라고 불리는 대학 중 한 학교를 나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공부가 싫어 학원 수업도 자주 빠지고 숙제도 하지 않는

등 학업에 전혀 관심이 없던 큰아이는 학원 수강이나 과외에도 학업 상승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고 대학 입학은 수도권 4년제 대학은 꿈도 못 꾸고 지방 2년제 전문대학을 나왔으나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배워 국내 중견기업의 현장 기술인으로 취업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이켜 보면 자녀의 학업 방식은 이론상 이런 방식이 좋다 아니다 저런 방식이 더 좋다고 구분할 수 없고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고차원 4차 방정식에 미분, 적분이 결합한 매우 난해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다 큰 아이들의 결혼을 고민해야 하는 다른 방정식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앞에 소개된 두 가지 사연의 어느 가장과는 전혀 다른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나름대로 가정의 역할은 충실하게 수행했고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해 본다면 그래도 6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60점은 각종 자격시험에서 합격이 되는 최소한의 점수로 낙제점수보다는 한참 높고 우등 성적으로는 한참 모자라는 점수로서 우등은 아니지만 낙제는 한참 넘는 그저 평범한 60점짜리 가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자고 나면 누군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네, 빚을 내서 주식투자를 하니 마니 난리지만 평범하고 느린 방법일지 모르지만 수입을 쪼개어 한 푼 두 푼 모으다 보면 큰 부자는 못 되어도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가끔 친구들 만나 '오늘은 내가 쏜다'라고 할 정도는 충분히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만 줄일까 합니다.

여자는 모른다

면도의 즐거움

애청자

여자는 모른다! 면도의 즐거움을! 물론 요즘은 레이저 제모를 통해 수염 자체를 없애려는 남자들도 많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면도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깔끔한 이미지를 위해 제모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면도기를 들고 수염을 정리하는 그 시간에서 작은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면도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털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동물의 털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체온을 유지하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기능.

중요한 부위일수록 털이 더 많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조금 특별한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직립보행을 하게 되고 생활환경이 달라지고 몸을 보호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털은 점점 기능보다 ‘관리’와 ‘미적인 의미’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이 바로 남자의 수염입니다. 수염은 어떤 문화에서는 권위와 품격의 상징이었고 어떤 시대에서는 지혜와 연륜의 표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왕이나 학자, 지도자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풍성한 수염을 붙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사극을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일수록 더 크고 멋진 수염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수염은 단순한 털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풍성한 수염을 길러 개성을 표현하는 문화보다는 깔끔하게 정리된 얼굴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수염을 관리 대상보다 제거 대상으로 아예 영구 제모를 선택하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모두 개인의 선택입니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수염이라는 것이 가진 의미, 또 그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까지 너무 쉽게 버리는 것 아닌지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역시 대부분의 동양 남자와 비슷하게 그다지 풍성한 수염을 가진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멋지게 길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매일 면도하는 사람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수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입대와 동시에 당연히 지급되는 면도기를 사용해서 아침마다 수염을 제거해야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노동. 그때까지만 해도 즐거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역을 하고 면도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일 하는 이 일을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을까? 자연스럽게 면도의 역사와 도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어디서도 쉽게 배울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하나씩 혼자 알아가는 과정이 재밌었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어떻게 면도했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인간은 왜 오랜 기간 면도라는 행위를 계속해 왔는지 찾아보면 볼수록 면도는 단순히 수염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정리한 ‘남자의 면도!’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즐거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도의 즐거움은 짜릿한 스릴입니다!

면도의 역사와 다양한 도구들을 탐구하던 제가 결국 다다른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중날 면도기였습니다. 영어로는 더블 엣지 세이프티 레이저(Double Edge Safety Razor). 과거 위험했던 일차 면도칼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고안된 면도기입니다. 하지만 이름에 Safety 즉 안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도구는 아닙니다. 자칫 손끝의 힘

을 잘못 조절하거나 각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피부에 상처가 남거든요. 그래서 더 집중하게 됩니다. 면도날이 지나가는 각도, 손에 들어가는 힘, 수염이 난 방향 그리고 그날의 피부 상태까지 섬세하게 살피게 되죠. 이 과정에서 면도가 단순히 털을 없애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의 정교한 기술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급소인 목덜미에 날카로운 칼날을 닿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주는 짜릿한 스릴감. 이것이 단순한 수염 정리를 남자들만의 숭고한 의식으로까지 격상시키는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즐거움은 반전의 쾌감!

이건 이발소에서 특히 더 강하게 발견됩니다.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 전체를 감싸 수염을 불리고 숙련된 이발사의 섬세한 손짓에 사각사각 수염이 하나씩 제거될 때의 그 기분! 타인에게 내 목을 맡겼을 때의 긴장감 뒤에 찾아오는 완벽한 편안함은 일종의 치유이자 상쾌한 쾌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르는 애프터셰이브의 그 개운함! 그건 면도 전의 거칠고 덥수룩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없애야 할 대상이 있었기에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제거의 쾌감! 이걸 수염이 나지 않는 여성분들은 평생 모를 남성들만의 독점적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즐거움! 그건 추억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면도라는 행위에 매료된 결정적인 시작점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 선친께서 이중날 면도

기 뚜껑을 열고 칼날을 교체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주말 만화영화 속 로봇이 출동할 때 뚜껑이 열리는 것처럼 어찌나 신기하고 대단해 보이던지요.

얼마 전엔 무려 15년간 제 아침을 책임져주던 면도기가 마침내 수명을 다했습니다. 지난 생일에 선물로 받은 면도기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기다린 이유도 이 면도기의 수명이 다해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15년간 나를 위해 수고해 준 면도기를 보내고 새로운 면도기를 맞았습니다. 샤워하며 수염을 충분히 불리고 천천히 크림을 바릅니다. 다소 거친 느낌의 수염이 많은 곳엔 더 섬세하게 크림을 바르고 새로운 면도기를 턱에 댄 순간 “어라?”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가는 면도기가 있었다고! 두 번의 손놀림도 필요 없이 한 번에 제거되는 수염들. 마치 무협영화 속 고수가 휘두른 칼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악당들처럼 휘리릭 순식간에 정리되더군요.

‘세상에나! 내가 면도를 하지 않았다면, 평생 이 즐거움을 모르고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자연스럽게 고등학생 아들에게 하루빨리 면도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듯 이제 내년이면 성인이 되는 녀석과 본격적으로 술 한잔 나누면서 면도의 참된 즐거움과 이성 교제에 대해 이야기 나눌 날을 고대합니다. 이 즐거운 면도의 세계를! 아들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나처럼 조금씩 천천히 평생 누리며 살라고!

여자는 모른다

남자도 있다

애청자

요즘 들어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갱년기인가 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하는 이야기이겠거니 했지요. 그런데 그 말 뒤에는 늘 설명이 따라옵니다.

“여자들은 갱년기 오면 힘들어. 아기 낳고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어. 예전 일도 잘 기억이 안 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힘들겠지.”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기억이 안 난다던 사람이 부부싸움만 시작하면 기억력이 갑자기 천재 수준으로 좋아집니다. 제가 잊어버린 지난주 일은 물론이고 몇 년

전 일, 심지어 연애 시절 이야기까지 줄줄이 나옵니다.

“그때 기억 안 나? 어떻게 그걸 기억 못 해? 그때 내가 얼마 나 서운했는데!”

저는 진심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마치 CCTV를 보관해 둔 사람처럼 날짜와 장소와 상황까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진 게 맞는 건가?’

얼마 전에는 제게도 노화의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휴대폰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화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밝기를 올려 보고 글씨 크기도 키워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안과에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노안이 시작되었네요.”

그 순간 괜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아직은 젊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이미 세월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안경을 맞춰 쓰고 며칠 지내다가 우연히 거울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눈가에 잔주름이 보이더군요. 순간 충격을 받은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안 쓰던 안경을 쓰니까 눈가에 주름이 생겼네.”

그러자 아내가 한마디합니다.

“안경 때문이 아니라 늙어서 그런 거야.”

참 냉정합니다. 위로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이 먹어서 옆으로 퍼지는 거냐?”

그러자 아내도 즉시 반격합니다.

“그럼 당신 머리는 왜 점점 넓어지는데?”

그 말을 듣고 손이 자동으로 이마로 올라갔습니다. 아무 리 생각해도 이 싸움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말다툼은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연애 시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20년도 넘는 일 아니 거의 30년 가까이 된 일까지 저는 정말 기억도 안 나는 사건들인데 아내는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갱년기라 힘든데 당신은 이해를 못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며칠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갱년기가 힘든 건 맞습니다. 아내가 괜히 그러는 것도 아닐 겁니다. 몸이 변하고 호르몬이 변하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니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설거지 좀 해달라면 해주고 빨래 좀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집안일도 웬만하면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그 정도는 남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보, 여자들만 갱년기가 있는 게 아니야.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어. 우리는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줄어들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젊을 때는 밤새워 일하고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하루만 무리해도 며칠을 끔끔 앓잖아. 글씨는 안 보이고 주름은 늘고 머리숱은 줄고 무릎은 쭈시고 서러운 일도 많아. 다만 남자들은 대개 참고 지나갈 뿐이야.

그러니까 갱년기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은 조금만 줄였으면 좋겠어. 당신이 힘든 것처럼 나도 힘들고 내가 힘든 것처럼 당신도 힘들잖아. 우리 둘 다 늙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미옥 씨, 이진 잔소리가 아니라 진심 어린 부탁인데 힘들다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지 말고 운동 좀 해요. 병원에서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러더라. 걷기든 자전거든 가벼운 스트레칭이든 몸을 움직이는 게 갱년기 증상 완화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당신 건강해지라고 하는 말이야. 당신이 아프면 나도 마음이 아프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누가 더 늙었는지 따지지 말고 누가 더 갱년기가 심한지 경쟁하지도 말고 서로 손잡고 운동이나 다니자.

어차피 앞으로는 주름도 같이 늘어날 거고 흰머리도 같이 생길 거고 기억력도 같이 깜빡거릴 테니까. 그때는 연애 시절 잘못된 일 말고 좋았던 추억만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당신이 그 추억까지 30년 동안 저장해 두고 있다면 말이다.

친절을 모아두렴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아침저녁 부는 바람은 가을이라고 착각할 만하다. 낮에는 무덥고 가을은 아직 발이 묶여 있는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절기는 틀림없다. 입추 지나더니 달라지는 걸 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다. 그러나 더위가 남아 있으니 10월 초순까지 더울 것 같다는 분도 계신다. 모를 일이다.

나는 항호르몬제의 영향으로 고관절, 무릎, 발목이 화가나게 아프다. 쿵쿵 미친 듯이 아픈 것보다 은근슬쩍 아픈 게 더 견디기 힘들다. 급기야는 지팡이를 짚고 이성미, 박미선, 남편과 넷에서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 사진을 인별그램에 올렸더니 죄다 난리가 났다. 게다가 이성미가 계단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며 ‘자진 정말 사진 못 찍는다’며 몇 컷 찍었는데 내 얼굴이 꼭 애 낳고 튀어나온 해산 어멈 같이 엄청 부어 보였다. 한 장 사진의 여파가 그렇게 클 줄이야.

우리의 PD는 5년마다 돌아오는 한 달의 휴가를 보내는 중이다. 잘 다녀오라고 염려 말라고 높은 사람 없으면 우린 더 멀쩡하게 잘 해낸다고 큰소리를 쳤다. 5년 세월에 한 달 휴가라니 ‘27년 차인 나는 반년의 휴가를 받아도 될 얘기 아닌가?’ 하니 대답이 없다.

만약 나에게 그만큼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태국 북쪽 치앙마이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 일단 물가가 싸니까 부담이 없고 가성비도 좋다. 2005년 MBC ‘행복한 수다’ 촬영으로 방콕에 갔을 때 멀쩡한 이동 수단인 비행기를 두고 하필 코끼리가 다니던 옛 산길로 긴 시간 돌아갔었다. 운전기사과 나 둘만 멀쩡했고 박미선, 송은이, PD들, VJ들 다 위액까지 토할 정도로 굵어진 산길 때문에 멀미를 했다. 그때만 해도 유능한 여행 코디를 만날 수 없었고, 굳이 짧은 비행시간을 접고, 180도씩 꺾이는 험한 산길을 새벽 4시 반에 출발해 낮 12시쯤 도착했다. 그 길을 택한 명분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도착한 치앙마이는 정말 좋았다. 태국 제2의 도시라는데 현대적 건물보다 고유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 신기하고 좋았다. 우산 만드는 공장, 전통 춤 공연장에서의 치앙마이식 저녁 식사, 보통 가정주부에게 배운 솜땀 조리법이 좋았다.

요즘엔 ‘라이끄라통 이펑 축제’ 참여하기가 꿈이다. 매해 11월에 열리는 축제는 강물에 소원 바구니를 띄우고, 풍등인 폼라이를 밤하늘에 올리는 행사인데, 수천 개의 풍등이 한 번에 밤하늘로 올라가는 건 불꽃놀이와는 다른 감성이다. 요새는 11월의 축제를 즐기러 치앙마이를 따로 찾는 외국 관광객들도

많단다.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다. 2005년에 약식으로 경험했지만 제대로 관광객으로서 자유롭게 참여하고 싶다. 유난히 그곳의 사람을 마음에 두는 이유는 친절하고 곱기 때문이다.

마침 후배가 98세에 첫 시집을 출간한 일본 할머니의 시를 보내왔기에 소개한다.

저금

난 말이지, 사람들에게
 친절을 받으면
 마음속에 저금을 해둬.
 쓸쓸할 때면
 그걸 꺼내
 기운을 차리지.
 너도 지금부터
 친절을 모아두렴.
 연금보다
 좋단다.

그러면서 ‘희은 언니는 글도 참 잘 쓰고,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늙어서도 좋은 프로그램 맡아 재밌게 일하고...’라고 곁들였다. 야야야, 거저 됐겠냐?

계절은 변한다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우리 집엔 거실과 안방에 에어컨이 있다. 하지만 안방에 있는 에어컨은 설치 후에 가동된 적이 거의 없다. 거실에 있는 에어컨만으로도 우리 집의 열기를 식히기에 충분하고 또 안방 마님께서 에어컨의 냉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나도 지나친 냉방은 꺼려한다.

하지만 더위를 굳이 이겨내고 싶지도 않은데 문제는 열대야에 있다. 낮에는 위낙에 기온이 높으니 에어컨 가동을 안 할 수 없다.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슬슬 눈치 게임이 시작된다. 아내는 갑자기 창문이나 베란다 문을 열어보고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며 호들갑을 떠난다. 내가 느끼기엔 한낮과 똑같이 찜통인데 말이다. 아무래도 우리 부부의 체질이 다른 건지 이 정도면 에어컨을 꺼도 되겠다며 전원 스위치를 누른다. 어차피 나에게 선택권은 없다. 그때부터 열대야와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다.

집에 두 아들 녀석도 있지만 젊어서인지 에어컨 가동 유무와 상관없이 밤에 잘 잔다. 솔직히 나이가 들면서 춥고 시린 겨울보다 차라리 뜨거운 여름이 낫다고 생각한다. 낮에는 에어컨의 보호막 안에서 견딜 수가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해가 지고 에어컨도 꺼지면 뜨거운 열기와 바람 한 점 느껴지지 않은 공기의 흐름이 내 몸을 감싼다. 선풍기를 틀지만 거대한 누군가 내 앞에서 입김을 부는 기분이다. 축축하다. 혼자 거실로 나와 거실 바닥에 누워 본다. 잠시 시원하지만 맨바닥에 등이 배긴다. 소파에 올라가 본다. 가죽 소파에 살들이 척척 들러붙는다. 어쩔 수 없이 안방 침대로 돌아간다.

이놈의 더위는 인식되는 순간부터 무너지지 않는다. 새벽녘 에라도 기온이 좀 떨어지면 나을 텐데 말 그대로 열대야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한다. 더위를 이길 수 없으니 아내에게 저항해 본다. 결국 에어컨을 튼 채로 밤을 맞이해봤다.

여기서 우리 부부의 또 다른 차이. 바로 취침 시간. 내 아내는 새벽 근무를 위해 밤 열 시면 잠자리에 든다. 하지만 나머지 세 식구는 여전히 방과 거실을 오가는 활동 시간이다. 그러기에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가는데 거실에 에어컨을 돌리면 안방 쪽 야외 창으로 설치된 실외기가 돌기에 아내는 방문도 창문도 열지 못하고 고립된다. 안방에 설치된 벽걸이 에어컨을 틀면 되는데 앞서 말했듯 아내는 에어컨 냉기를 싫어한다. 아, 이건 솔로몬이 와도 풀 수 없는 난제다. 결국 에어컨을 꺼야 한다.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을 틀고 이불을 덮고 자면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다고. 부럽다. 전기요금은 나보다 많이 나오겠지. 위안이 크게 되진 않는다. 열대야가 빨리 끝나거나 에어컨을 발명한 캐리어 박사님처럼 냉기가 나오는 선풍기를 발명하는 박사님이 나오길 기다리거나.

어쨌거나 계절은 변한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아침저녁으로 선선했었으니 투덜거림도 그만해야지.



IBK기업은행

05
IBK 창립 55주년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
사장님들,
이제 사업
무료로 하시죠
”



이 놀라운 서비스들을
**IBK기업은행이
무료로 다 알아서**



i-ONE 사장님 파트너



카드가맹점 등록 ·
입금계좌 변경 서비스



IBK상거래원스톱



본 광고는 2020년 12월 21일 기준입니다. 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88-258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이미지 또는 일부)는 상상
사후 생성 편집되었습니다.



IBK 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AI와 IBK가 만나면?

세상을 키우는 AI BANK

AI BANK

고객을 키우는

기업을 키우는

금융의 힘을 키우는

AI 데이터 고도화

AI 금융 생태계 구축

AI 친화적 경영